



# 美재무 “억만장자에 세금 걷어 전세계 분배? 사인 못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안정감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옐런, G7 앞두고 부유세 반대

매년 순자산의 최소 2% 과세  
올 G20 의장국 제안...獨·佛 등의

부자 증세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  
소득 아닌 자산에 세금은 반대

이중과세 우려...도입 어려울 듯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우리는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어떤 방식으로든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한다는 국제협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며 “이는 우리가 서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자산가들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러한 의견서를 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이다. 이렇게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 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달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조세관측소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의 약 80%가 G20 회원국에 살고 있다.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연간 2500억 달러(약 34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G20 실무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부유세 도입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특정 국가에 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과세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살 수 있어 어떤 국가가 과세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각국의 과세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1억 달러(약 1364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의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최고 23.8%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나은 기자 better68@

# ‘월가 황제’ 조기 은퇴 발표날 JP모건 “모든 신입에 AI 교육”

## 美 최대 은행 대격변 예고

다이먼 CEO “임기 5년 안남아”  
주가 4.5% 급락...AI 투자 강화  
기술 부문 지출 23조원 예상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수년 내 사령탑 교체와 인공지능(AI) 투자 강화라는 대격변을 앞두고 됐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사진)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서 자신의 임기가 5년 안쪽으로 남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내 시간표는 더는 5년이 아니다”라며 “예상 임기는 5년 미만”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그간 경영 승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은퇴까지 5년 남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은퇴 시기가 더 가까워졌음을 인정했다.

그는 “나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68세인 다이먼 CEO는 2005년부터 CEO를 맡고 있다. 그사이 JP모건은 자산과 예금 부문에서 미국 최대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공격적으로

지점을 확대하면서 2021년 본토 48개 주 전체에 점포를 개설하는 은행이 됐다. 다이먼 재직 기간 JP모건 주가는 배당금을 포함해 700% 넘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지수 수익률인 500%를 크게 웃돈다.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공로를 알고 있어 다이먼 CEO의 조기 은퇴 시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JP모건 주가는 이날 4.5% 급락했다.

JP모건은 AI 투자 강화도 예고했다. 메리 어도스 JP모건 자산관리 부문 CEO는 “올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은 AI에 대비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엔지니어링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AI는 시간 절약과 이익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AI 덕분에 일부 애널리스트의 업무 시간은 이미 하루 2~4시간 절약됐다”고 말했다.

대니얼 핀토 JP모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우리 은행에 있어서 AI 교육이 창출할 가치를 10억~15억 달러로 보고 있다”며 “AI는 개발자 약 절반에 해당하는 6만 명과 콜센터 직원 8만 명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올해 기술 부문 지출이 170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AI 투자를 가속할 뜻을 내비쳤다.

고대영 기자 koda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국민 트래블 카드 신규 취향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KB Pay 외화머니 충전 시 100% 환율 우대  
해외 가맹점/해외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코레일 철도 최대 5천원 할인\*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

**KB국민 WE:SH Travel 카드**

해외 이용금액 100% 환율 우대(USD 기준)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전 세계 공항라운지 연 2회 무료\*  
\*전월 국내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제공

■ 상품해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이용조건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www.kbcard.com) 참조  
□ KB국민 WESH Trave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 국내외겸용(Mastercard)) 2만 5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 9천원  
□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연회비: 환원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간의 유지 할부수수료를 적용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환상 상사법정이자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KB Pay 외화머니 충전 시 환율우대 상시 제공 (KB국민카드 영업환경 및 사정에 따라 우대 통화종류, 제공기간 및 우대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신금융협회 심의필제 2024-C2b-05244호 (2024.05.10~2025.05.09)

**KB국민카드**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 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쿠팡, 상반기 대만에 물류센터 3호 '위시' 품은 쿠팡, 북미·유럽 공략 G마켓, 몽골 1위 이커머스와 맞손 SSG닷컴·11번가도 사업확장 나서

정부, C커머스 등 고강도 규제 추진 업계 "무역 갈등 초래할 수도" 우려

외국인들의 한국산 제품 직접구매(직구) 수요가 늘면서 국내 이커머스업계가 해외물류사업을 정비하는 등 '역직구' 불륜 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불도저식 직구 규제 발표가 모처럼 훈풍을 맞은 역직구 관련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 상반기 중 대만에 3호 풀필먼트(통합물류)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2022년 대만에 진출한 쿠팡은 작년 11월 2호 풀필먼트 센터를 대만에 열고 한국 상품을 판매·배송 중이다. 쿠팡을 통해 대만에 판매 중인 상품 3건 중 2건(70%)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 수는 1만

## 국내 이커머스 역직구 강화 사례

	대만 신사업 통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올 상반기 대만 현지 세 번째 물류센터 가동
	유럽·미국 쇼핑 플랫폼 서비스 위시 인수, 쿠팡 홈페이지 위시 플러스로 변경, 역직구 사업 강화
	몽골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와 업무협약 체결, 쇼피에서 최근 G마켓 메가세일 진행
	G마켓 글로벌샵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우수 상품 입점 등 계열사 시너지
	구매·판매 약관에 '글로벌11번가' 내용 신규 추가하는 등 역직구 사업 검토

\* 출처: 각사

2000여 곳이다. 쿠팡 측은 "3호 풀필먼트 센터가 추가로 운영되면 대만 수출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쿠팡그룹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도 최근 '위시플러스'로 명칭을 바꿨다. 앞서 쿠팡은 2월 전 세계 200여 개국 공급망을 갖춘 쇼핑 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인수했다. 위시플러스에선 기존 쿠팡 상품과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 상품을 동시에 취급한다. 쿠팡도 한국 상품을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는 교두보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G마켓은 몽골이

커머스 '쇼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역직구 판로를 확대했다. 쇼피는 65만 고객을 보유한 현지 1위 이커머스다. 몽골 전체 인구가 약 350만 명인데, 5명 중 1명꼴로 쇼피를 사용하는 셈이다. G마켓은 역직구 셀러의 상품 중 우수 상품 30만 개를 엄선해 쇼피에 제공하고 있다. 판매 주력상품

은 한국산 패션, 뷰티, 음반, 식품 등이다. G마켓 관계자는 "쇼피에서 G마켓 메가세일을 진행한 결과 역직구 상품 거래액이 평상시 대비 270% 급증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역직구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SSG닷컴은 G마켓 글로벌샵에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몰 우수상품을 입점해역

직구를 노리고 있다. 11번가는 구매·판매 약관에 '글로벌11번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역직구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직구 등 비대면 이커머스 거래가 유통채널의 대체로 부상하면서 국내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직구를 통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최근 C커머스 직구 등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되레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는 직구 규제에 대한 정부의 물이해와 무차별적 규제가 무역 갈등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제야 겨우 시동을 건 K-역직구의 성장 가능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 비판론도 크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는 역직구가 가능하지만 중국(向) 역직구는 거의 막혀 있다"면서 "국제통상은 결국 상호주의인데, 정부의 직구 규제 불통이 역직구 시장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초저가 경쟁보다 품질로 승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갖춰야"

### 전문가 제언

"규제 개선 등 정부 지원 절실 코세페·동행세일 홍보 노력도"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직구 시장' 내입지에 대해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력'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 제품과 해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부재한 것이 난제라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이커머스를 통해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K-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미 우리나라의 직구 시장 규모가 작년 6조4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일반화됐고, 한국 제품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알려질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직구를 통한 판로 확대 흐름이 대세가 되려면, 외국인들이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한국산 제품의 고품질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결국은 품질"이라며 "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고, 내노라하는 명품 브랜드도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결국 상품력을 높이는 것만이 한국산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역직구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G마켓 등 국내 대형 이커머스조차 해외에서 인지도가 다소 낮은 상황에서 미국 아마존처럼 메가 이커머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C커머스와 우리 K커머스 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중국 판매자만 입점하던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미 K-베뉴(한국상품관)를 설치,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켜 전 세계에 노출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역직구에 있어서도 (자본력을 앞세운 알리가) 대형 유망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일반 제조업체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바우처나 해외 트래이드쇼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및 판매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나 동행세일 등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적극 소개하는 것부터 그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유승호 기자 peter@

# 처음 뵈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용자 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고 단단한 신뢰와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와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 애플 이어 삼성·MS도 참전... "AI PC 3년새 62% 성장"



삼성전자가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4 엣지'를 21일 공개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LG전자가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LG 그램'을 선보였다. 인텔 코어 울트라 CPU를 탑재해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자체 AI 연산이 가능하다(위쪽 사진). 애플은 M1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선보였다. 기존 모델 대비 처리속도가 60% 향상됐다(아래쪽 사진). 각 사



## 인공지능 PC 시대 열린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전자 업체들이 앞다퉀 인공지능(AI) PC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AI 기능을 갖춘 PC·노트북이 기존 시장의 모델들을 대체하고, 침체된 PC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4 엣지'를 공개했다. 이전에 출시된 모델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MS의 대화형 인공지능인 '코파일럿+'(플러스) PC 기능이 추가됐다는 부분이다. 기존 코파일럿 기능은 클라우드 AI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통해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이같은 정보처리 방식을 방식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AI를 지원한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중앙처리장치(CPU)가 인텔에서 퀄컴 제품으로 바뀐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에 탑재된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최대 45 TOPS(1초당 45조회 연산, Trillion Operation Per Second)의 처리속도를 제공한다.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이날 새벽 MS가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일(현지시간) "지금까지 나온 윈도우 PC 가운데 AI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북4 엣지' 공개 MS의 대화AI '코파일럿+' 추가 CPU도 인텔에서 퀄컴으로 변경 나델라 "맥북보다 처리 58% 빨라" 애플 '맥북 에어' LG '그램' 선공 침체된 PC시장 활기 불어넣을것

가장 빠른 제품"이라며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다. MS의 제품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최근 오픈AI가 출시한 AI 모델 'GPT-4o(포오)'도 탑재된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일부 AI 작업 실행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 제품에는 퀄컴·AMD·인텔 등 칩이 사용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제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맥북 에어보다 AI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며 애플을 겨냥하기도 했다.

애플도 올해 3월 AI 기능을 갖춘 노트북인 '맥북 에어'를 공개했다. M1칩을 탑재한 기존 모델 대비 60% 향상된 속도를 보인다고 평가받는다. 애플은 M3칩이 AI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성능을 끌어올려 카메라 기능, 실시간 받아쓰기, 번역, 자동 완성 텍스트, 시각 이해, 손쉬운 사용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AI 프

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LG 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 모델에는 차세대 프로세서인 '인텔 코어 울트라 CPU'를 탑재해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자체 AI 연산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픽 성능은 기존 CPU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향상됐다. 포베로스 3D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LG그램의 AI는 인물·장소·날짜 등 38개 카테고리에서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분류할 수 있고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5장의 이미지 제작도 가능하다.

AIPC 시대가 도래하며 최근 감소하던 PC 출하량도 다시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 '2024 Gen AI 임팩트'를 통해 "2021년 코로나19 이후 2년간 역성장했던 PC는 지난해 대비 2.4% 성장한 2억48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할 것"이라며 "성장의 주요 드라이버는 최근 2년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역성장한 기저 효과와 AIPC 신제품 효과"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온디바이스 Gen AI를 구현하는 AIPC 성장률은 61.8%에 달하며, 윈도 기반 AIPC와 신규 맥북 출시 효과에 힘입어 올해 PC 시장은 지난해 대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AI반도체들이 각 PC 모델에 탑재되며 각 제조사가 AIPC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전자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 "대통령 인사권 침해 등 야당 의결 강행 문제점 있어" 다시 국회로... 정국 격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

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 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



한 총리는 "행정부 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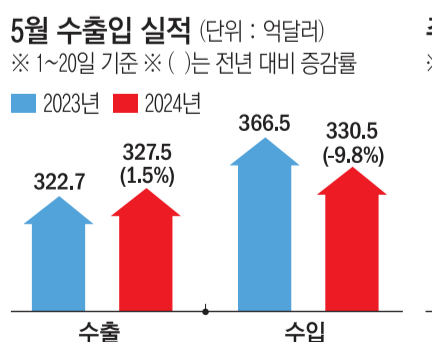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조업일수 이틀 적었어도 수출 플러스... 8개월 연속 증가 확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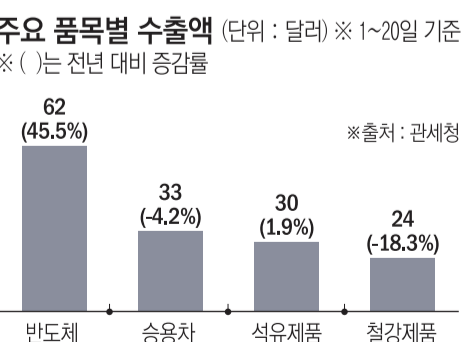
20일까지 327억弗 ... 1.5%↑ 반도체 46% 증가... 선박 급증 무역수지 3억400만달러 적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이틀이나 적었음에도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8개월 연속 플러스가 확실시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14.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



며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자릿수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 주변기기(24.8%) 등

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4.2%), 철강제품(-18.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국가인 중국(1.3%)과 미국(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 수출액은 68억33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61억6600만 달러)을 웃돌았다. 베트남과 대만도 각각 10.5%, 48.5%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11.8%), 일본(-4.8%) 등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5300만 달러로 9.8% 감소했다. 원유(-4.2%), 가스(-7.1%), 기계류(-21.1%) 등의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3%), 유럽연합(EU--14.1%), 일본(-9.5%) 등

로부터 수입이 감소했다. 미국(1.1%), 대만(22.1%) 등으로부터 수입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3억4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6억7300만 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4억9900만 달러 적자였다.

조인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품목이 고르게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역수지 또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클만하면 '씩둑'... 정부 '규제치기'에 씨 마르는 신사업

## 기울어진 여신금융, 생존기로

카드사의 전통적인 수익구조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신사업 진출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 '금융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본업'을 넘어 '부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술'만이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가 지출한 개발비는 총 44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2246억 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개발비는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사업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새로운 사업의 수익성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금융데이터거래소에 게재된 카드사 데이터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수익모델 역시 불분명하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데

## 업황악화 카드사 신사업 사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개발 ↑ 무료제공 데이터에 수익성 톱 車할부금융, DSR 논의에 후진 캐피탈, 보험대리점업도 막혀

이터 판매 수익은 14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전체 매출 규모(5조3786억 원)의 0.002%에 불과하다. 현대카드 등 타카드사의 경우 마케팅과 데이터 결합에 활용할 뿐 수익성은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신사업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도 한계에 직면했다. CB업은 기존 신용평가 모델에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 상권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진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사들의 신규먹거리로 부상했던 자동차할부금융도 제동이 걸렸다. 카드사들의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은 2013년(1조2143억 원) 이후 지속 성장해 2022년 10조690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자 지난해(9조6387억 원)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카드업계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에서 장기카드할부금을 DSR에 반영하는 규제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카드사의 할부금융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캐피탈계도 신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캐피탈사들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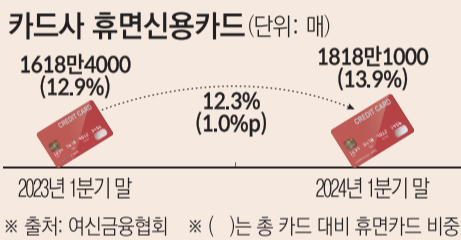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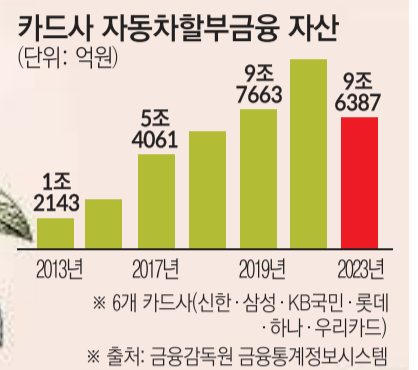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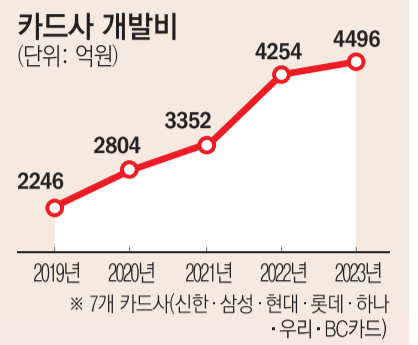
캐피탈업계는 지난 수년간 보험대리점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캐피탈사들이 취급하는 자동차등기·설비 금융에 보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캐피탈사엔 보험대리점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일각에선 신사업에 부진을 겪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전자금융거래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금융거래업종은 일부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는 시장 조정 장치가 없었던 영향"이라며 "카드사들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관련 규제 등 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원 기자 jsw@



## 간편결제에 밀린 신용카드... 7장 중 1장은 지갑서 쿨쿨

빅테크 약진 속 휴면카드 1년새 200만장 ↑ 여신업계, 규제 풀거나 동일 법률 적용 촉구

카드사의 수익 기반이 침식당하는 사이 간편결제사인 '페이' 업체들은 일상에 빠르게 침투해 비교적 쉽게 결제 시장에 자리 잡았다. 상품을 살 때 별도의 인증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 가능한 '편의성'을 등에 업고 카드사가 했던 '결제'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메기'로 불리기에 '넘사벽'으로 커지는 중이다.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휴면신용카드는 1818만1000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18만4000매보다 12.3% 늘었다. 전체 신용카드 대비 '지갑

속에서 잠자는 카드' 수 비중도 13.9%로 1년 새 1%포인트(p) 확대됐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간편결제가 사용되면서 현물 신용카드를 쓸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모바일이 지갑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간편 결제 시장은 폭풍 성장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 이용액은 87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이용건수는 2735만 건(13.4%) 증가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이 '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층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계좌와 직접 연동하거나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엔 소액 후불

결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불금과 계좌연결로 간편결제를 이용한 비중은 39.0%로, 2020년 34.1% 대비 4.9%p 증가했다.

'페이'사들도 급속 성장 중이다.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전 분기 대비 2.2% 성장한 1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오프라인 결제액은 간편 결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결제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40조9000억 원이었으며 매출기여거래액(Revenue TPV)도 31% 성장하며 12조 원에 육박한 11

조9000억 원을 달성했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 여부를 따져 수수료를 재설정하게 돼 있다. 반면 결제 기능은 카드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간편결제사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형평성이 빛나지 않는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

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을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에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 후불 결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사실상 여신업을 하고 있다"면서 "간편결제업체에 카드사에 적용하는 법률에 맞춰 규제 하거나 카드사의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은 기자 dove@

## 신용대출·카드사용 감소... 가계빚 1년 만에 줄었다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통계

### 고금리·부동산 부진에 수요 위축 가계빚 전분기 대비 2% 이상 감소

올해 1분기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줄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대출 수요가 위축된 데다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4000억 원)보다 0.1%(2조5000억 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1년 만이다.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000억 원)·3분기(17조 원)·4분기(7조 원) 계속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 원)은 12조4000억 원 늘었

지만, 증가폭은 작년 4분기(15조2000억 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 원)은 12조6000억 원 줄어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 원)보다 커졌다. 대출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 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을 밑돌았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6000억 원 불었다. 주택도시보증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됐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 채상병 특검 거부에... 野 “탄핵 사유” vs 與 “단일대오”

민주당, 특검법 28일 재표결 예고  
이재명 “기회 권어찬 정권 심판”  
황운하 “대통령실 수사제한 위헌”  
국민의힘, 표 이탈 방지 내부 단속



범야 거부권 규탄 회견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21일 여야는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반면 여권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국회 재표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

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 외압 진상 규명하지”, “모이자 5·25,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범야권 정당은 25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야권은 ‘탄핵’ 경고 메시지도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험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

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직접 찬성표를 던질 우려가 있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과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직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집안 단속에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 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재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해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 180석에 그친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에 불출석해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들어야 재의결 요건이 충족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인공지능(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과가 무산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지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퉀 법률을 제정해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2월 과방

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될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정 의결할 기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 AI 기본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AI 기본법이 민생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이 사안을 정쟁화해 우리를 괴롭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 법을 들이대며 협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 민주당 반대로 ‘AI 기본법’ 상임위 통과 무산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특별 전시 MUCHA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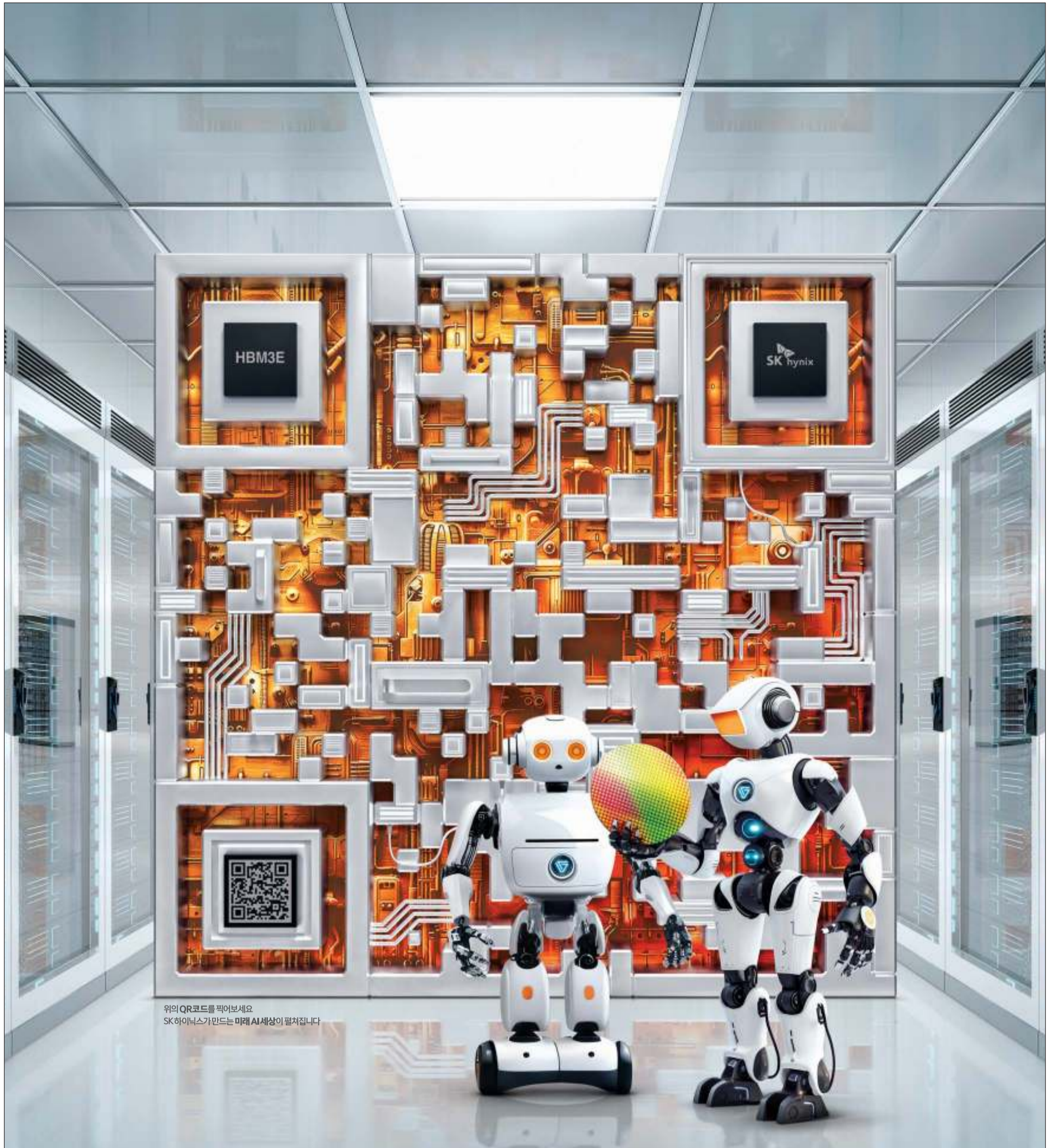
체코의 국민 화가,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판화, 미디어 아트, 아트숍을 통해  
봄과 여름 사이, 찰나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자세히 보기

전시 장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  
전시 기간 5. 4(토) - 6. 16(일)

THE HYUNDAI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 최저임금 첫 회의... 차등적용·1만원 돌파 여부 '충돌'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이견 팽팽

勞 “목적 어기는 행위 용납 불가”  
使 “수용성 높이려면 구분 필요”

## 140원만 올려도 시급 만원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상으로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올라설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

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1.42%)만 올랐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업 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세 번째)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 하현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

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중견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현직자 채용 상담, 현장 심층 면접, 채용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원호 기자 hyunho@

# 반도체 부진에... '빅10기업' 수출 비중 폭

(작년 기준)

## 통계청·관세청 '기업별 무역통계' 4년만의 감소로 수출액 33% 차지 석유정제품 가격 하락도 원인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최상위 기업들이 영위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3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4억 달러(7.5%)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이 9.4% 줄어 2019년(-13.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지난해 원유가격 하락으로 석유정제품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석유정(-19.6%), 석유화

학(-13.9%), 소매업(-10.9%) 중심으로 4.9% 줄었다. 중소기업 역시 전문·과학·기술(-27.7%), 섬유·의복(-13.6%), 운수·항공업(-13.0%)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무역집중도를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77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6% 급감했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작년 해보다 2.7%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보다 1.1%p 줄었다.

대기업 수출 비중 감소 여파로 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17.7%에서 18.2%로, 중소기업은 17.1%에서 17.9%로 확대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최상위 기업들이 영위하는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대기업 수출 비중이 크게 줄면서 자연스럽게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다. 작년 중국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동남아(-13.6%),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반면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연합(CIS, 12.4%),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부 국가인 동구권(8.2%), 미국(5.5%)에서는 늘었다.

지난해 수입 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14.2% 크게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9%, 7.3%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액은 1944억 달러로 작년 해보다 19.1% 감소했다. 비중은 30.6%로 2.6%p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입액은 동구권(7.3%)에서 늘었으나 CIS(-34.8%),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 줄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공동주택서 로봇배송 실증' 내달부터 시동

## 국토부·LH, 임대주택 등 지원

6월부터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렉스리서치는 2030년 전체 물류 중 20%가 로봇에 의해 배송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

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711-1)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연동, 실내 수평·수직 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KIEP, 세계 성장률 2.8% → 3.0%... “회복세 소폭 둔화”

## 美경기 하향세에 日·유럽 부진 예상 고금리 장기화 등 하방요인으로 꼽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해 세계경제가 3.0% 성장하며 회복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차별화된 통화정책, 포퓰리즘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21일 '2024년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3.2%)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3.0%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 2.8%에서 0.2%p 상향한 것으로, 국제통

화기금(IMF·3.2%)·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 등 타 기관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등으로 요약되며 연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중에선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고 유럽과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예상보다 강한 소비지출·민간투자 회복·정부지출 등이 주요 성장축으로 작용하며 올해 2.4% 성장(중전 전망치 대비 0.9%p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로 지역은 낮은 투자와 해당 지역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 부진으로 0.7% 성장(중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완만한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성장을 이끈 수출입 부문 기여도 하락이 예상되면서 올해 0.9%(중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은 인도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 및 타 신흥국의 완만한 경기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를 내건 중국의 경우 시장의 낮은 기대와 경제 리스크 지속,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의 다양한 경제안정 정책 효과를 종합 고려해 중전 대비 0.3%p 올린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인프라·주택 공급 중심의 정부·민간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중전 전망치 대비 0.6%p 오른 6.8%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올해 세계경제 키워드로는 “정책의 조율·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을 제시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 중동 덮친 돌발 악재에... '후계자 승계' 새 리스크 부상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경제 가뜰이나 좋지 않은데  
권력 세습 가능성에 반발 위험  
살만 사우디 국왕은 건강 악화



이란 테헤란의 발리 에 아스크 광장에서 20일(현지시간) 사람들이 고(故)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 반면 일부 반체제 진보 세력은 독재 철폐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테헤란/AP뉴스

고(故) 에브라힘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건강 악화가 중동 정세에 돌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두 중동 패권국의 지도자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향후 후계자로의 원활한 승계 문제가 중동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로 갈등이 고조된 상태인데 새 불확실성 요소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후임자가 누가 될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란에서는 대통령보다 사실상 최고

지도자 영향력이 더 크고 라이시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당장 이란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격화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안에 선거를 치른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보궐선거 날짜는 내달 28일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85세의 고령인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다. 당장 라이시 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자리매김 했는 데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미국에 빠지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고 신정공화정을 세운 이란에서 권력 세습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클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 어떤 인물이 후계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더 큰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란은 현재 4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이시 집권

기간 미국 달러화 대비 리알화 가치는 반 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란의 정권 교체 문제는 오랜 '양속'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우디에서는 올해 88세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고열과 관절통 증세와 함께 폐렴 진단을 받자 그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날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현재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올라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국왕의 와병이 현 국정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나 이란과의 관계 개선 추세에 큰 흐름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왕좌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사우디 내부의 정치적 공작이 줄어들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밀려오는 관광객 몸살... 후지산 사진명소에 가림막

일본 아미나시현 후키가와구치코 마을의 한 편의점 앞에 21일 관광객들이 후지산을 촬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가림막이 세워지고 있다. 이 편의점은 후지산 촬영 명소로 소문나면서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일본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식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아미나시현 후키가와구치코 마을의 한 편의점 앞에 21일 관광객들이 후지산을 촬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가림막이 세워지고 있다. 이 편의점은 후지산 촬영 명소로 소문나면서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일본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식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아미나시(일본)/로이터연합뉴스

## 유럽車업체, 美 금지한 中 부품 줄줄이 사용

美 상원, BMW·폭스바겐 등 지적  
'강제노동' 中 기업서 부품 조달  
부품 수입 중단·자발적 교체 실시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들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BMW,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등이 중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중국 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BMW와 재규어랜드로버 모두 기업 공급망에 금지된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후에도 미국 법을 위반하고 계속 중국 공급사가 만든 부품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MW는 지난해 12월 해당 중국 업체가 미국 정부의 금지 명단에 추가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문제 부품을 쓴 미니

차종 최소 8000대를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폭스바겐의 경우 해당 문제가 발각된 후 미국 관세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미국 입항 전 부품을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MW는 성명에서 "부품 수입을 중단하려고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차량의 부품을 자발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 관행과 인권, 근로 조건에 관해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역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했다"며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마련하고 신장위구르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부품의 수입을 전격 금지했다.

와이트 위원장은 성명에서 "자동차업체들은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찾을 수 없다고 맹세하고 있지만, 우리 이들이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업체들은 자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美 연준 인사들 '금리인하 신중론' 한목소리

연은 총재 "세번의 인하는 부적절"  
부의장들 "인플레이션 추이 지켜봐야"  
내달 FOMC 점도표 발표 '쏠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하 신중론을 쏟아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주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우려와 달리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세 번의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스터 총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이날 모기

지은행가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4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고무적"이라면 서도 "이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경제 데이터, 전망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클 바연준 금융감독담당 부의장은 이날 애틀랜타 연은이 주최한 2024 금융시장 콘퍼런스(FMC) 환영 연설에서 "실망스러운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중양은행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래피얼 보스텍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같은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 테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공개된 약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2%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금리인하가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연준은 다음 달 11~12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새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예측에서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이번에 두 차례로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 유명 경제학자들이 속한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회원들은 올해 금리가 0.5% 포인트(p), 즉 2번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 조사 때의 3차례보다 축소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첫 금리인하 시점으로 9월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 "영화 'Her' 목소리 똑같네"... 챗GPT 모델 일부 이용 중단

조앤슨 "내 목소리와 흡사" 분노  
오픈AI, 논란에 "모방 아냐" 일축

오픈AI가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앤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챗GPT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GPT-4o(GPT-포오)' 음성 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 중단 조치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오후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챗GPT 음성 서비스 중 하나인 '스카이'의 목소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이 다수 들어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스카이를 일시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오픈AI가 인간과 같은 반응 속도로 음성 대화가 가능한 GPT-4o를 선보인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새 AI 모델은 브리즈, 코브, 엠버, 주니퍼, 스카이 등 총 5개의 목소리로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 이중 스카이의 목소리가 영화 'Her(그녀)'에 나오는 주인공 조앤슨의 음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앤슨 본인조차도 이날 성명을 올려 "가장 친한 친구와 뉴스 매체에서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려 화가 났다"고 고집했다.

오픈AI 측은 이러한 논란에 "스카이의 목소리는 다른 전문 배우의 목소리"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우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선 기자 hsyun@

# 주도권 경쟁서 밀린 'HBM·파운드리'... "시장 탈환 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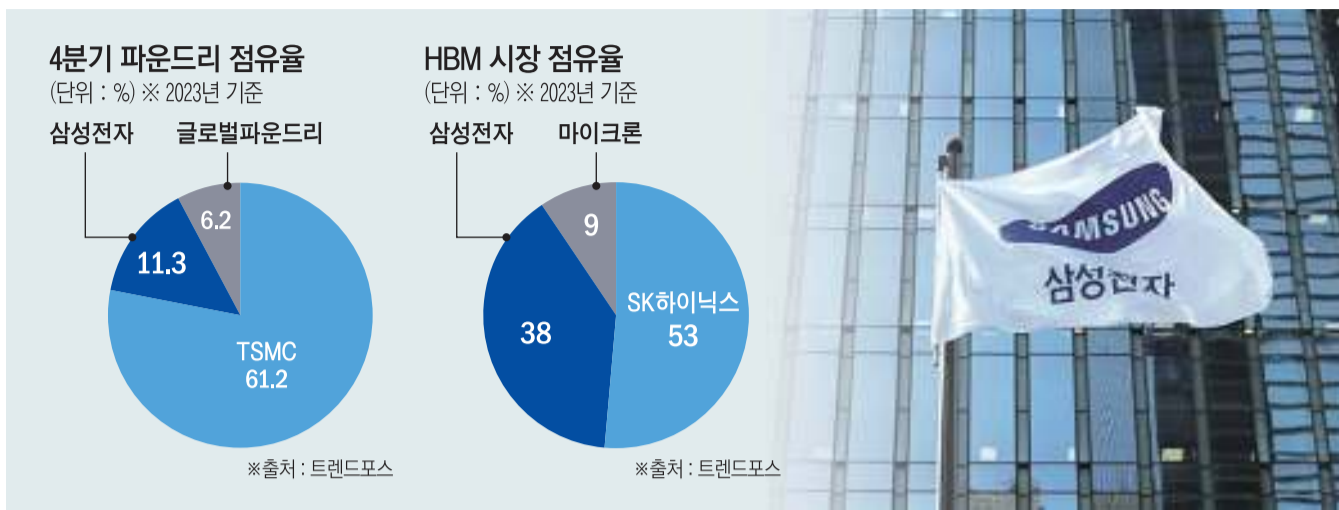
<고대역폭메모리>

## 삼성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작년 최악의 적자에 위기감 고조  
차세대 제품 양산으로 부활 노력  
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 적극 나서

삼성전자자원포인트인사로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한 건 현재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기동 사업이었던 반도체에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경쟁사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파운드리역시 업계 1위인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다. 전영현 신임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장의 선결 과제로는 단연 반도체 사업 실적 회복이 꼽힌다.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문은 1분기 4조 5800억 원, 2분기 4조 3600억 원, 3분기 3조 7500억 원, 4분기 2조 1800억 원 등 4분기 연속 손실을 내 누적 적자가 약 15조 원에 달했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1조 9100억 원의 이익을 내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적자 상황으로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간 DS 부문은 매년 초 연봉의 50%가량의 OPI를 받아왔다. 또 다른 성과급 제도인 목표 달성장려금(TAI) 역시 지난해 하반기 DS부문의 지급률은 기본 12.5%로, 상반기(25%) 대비 반 토막났다. 성과급 미지급에 불만이 커지면서 DS부문 직원들의 노조 가입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실적 악화 배경에는 반도체 사이클 다운턴(하락 국면)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감소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크지만, HBM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크게 빼앗겼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데이

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생성형 AI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격 역시 일반 D램의 3~5배, 개당 수익률은 D램의 5배가 넘는 고부가 제품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38%로, 1위인 SK하이닉스(53%)보다 크게 뒤처졌다.

무엇보다 시장의 큰손인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게 뼈아팠다. 10년 전부터 HBM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인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몸집을 크게 키웠다. 3월에는 5세대 HBM인 HBM3E(8단)도 공급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 사업 협력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격차는 더 벌어질 것 이란 전망이 많다.

경계현 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자리에서 HBM에서 한발 늦었다는 지적에 관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파운드리 시장 역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11.3%로, TSMC(61.2%)와의 점유율 격차는 직전 분기 45.5%포인트(p)에서 49.9%

p로 더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시장 수요에 맞는 차세대 제품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다. HBM에서는 HBM3E 이후 시장 탈환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2분기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대규모 언어모델(LLM)용 AI 칩 '마하-1'도 개발해 연말부터 양산한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낸드플래시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업계 최초로 290단 수준의 1Tb(테라비트) 트리플레벨셀(TLC)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퀴드레벨셀(QLC) 기반 제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QLC 제품은 TLC보다 하나의 셀에 더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어 저장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현재용 삼성전자 상품 기획실 상무는 이날 뉴스룸에 공개된 V낸드 기획·개발 담당 임원 인터뷰에서 "AI용 고용량 스토리지 서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목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QLC 기반 제품을 개발해 AI용 고용량 스토리지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최근 통합 1년을 맞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손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 김승연 "글로벌 방산 개척... 미래사업 선제적 대비"

한화그룹은 20일 김승연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현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회장이 방산부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인 김동관 부회장과 사업부문 대표인 손재일 사장 등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들도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사업장은 항공기 엔진·부품과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 방산 제품을 생산한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엔진이 생산됐다. 이날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통합 출범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 현황과 글로벌 시장개척 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신규시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루마니아의 K9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해 유럽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유럽을 넘어 북미 등 전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

### 방산부문 창원사업장 첫 방문 K9 등 역대 최대 실적 격려 "유럽 넘어 북미 등 시장 확대"

국의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과 첨단기술 기반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차별성과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변화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화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로서의 변화를 독려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과 무인기반의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폴란드와 약 7조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다련장로켓인 천무의 조립공정을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생산 현장도 둘러봤다. 또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되면서 세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

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을 살펴봤다. 생산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사업장 내 식당에서 호주 레드백 수출에 기여한 직원 및 사내 부부, 신입사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레드백 방호장치 개발을 담당한 광동우LS 사업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출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호주에서 무사히 성능 테스트를 마친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방산 선진국인 호주에 첫 수출을 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화인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격려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도 약함이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발사체 사업 수주를 격려한 데 이어 주력인 방산 사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중소 인력난 해소 3000억 투입

### 중진공, 청년 장학생·경단녀 발굴 교육·복지 확대로 장기 재직 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청년 장학생, 경력 단절여성 등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교육·복지 확대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오찬브리핑을 열고 "과거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대한 애로가 많았다면, 이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통계를 보면 300인 미만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인력이 2배가량 더 부족하고, 미충원율도 높다"며 "그만큼 중소기업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2952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부문별 자금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인력양성대학 등 산합협력인력을 양성하는데 474억 원을, 직무·정책연수 등을 운영하는 연수사업에 239억 원을 쓴다. 또 창업패키지와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975억 원을,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1217억 원을, 기업인력애로센터에 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한교 이사는 "올해 목표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르네상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도 39세 이하 3년 미만 창업자에서, 이제는 나이제한 없이 7년 미만으로 확대한 만큼 내년 15주년 때에는 르네상스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롯데홈쇼핑, 中 企業 돕는 '상생방송' 더 키운다

### 2013년부터 운영... 330개사 참여 모바일 쇼트폼 무료제작 지원 확대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는 '상생방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개그맨 김민기, 흥운화 부부 등 셀럽 고정 출연을 지원하고 모바일 쇼트폼 무료 제작에 나선다.

21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부터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입점 컨설팅, 수수료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생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방송은 △방송 수수료 우대 상품 소개 영상 제작 지원 △삼

품 출시 시 무료배송 △상생 적립금 10% 등 다양한 혜택을 강화해 왔다. 현재까지 약 330개사가 참여했으며 방송 횟수 약 1700회, 주문 건수 60만 건을 기록했다. 상생방송을 계기로 해외까지 진출한 지역 맛집부터 매출액이 2배 이상 신장한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성공사례를 배출했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장은 "쇼트폼 제작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 채널 역할을 넘어 마케팅, 역량 교육, 판로 확대 등 상생 파트너로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깐



삼성생명 FC  
지원상담문의

프리미엄 고객사랑 서비스  
고객 방문물품을 지원합니다

코칭 매니저(CM)  
전담 CM이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사랑On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KGM '미래 모빌리티' 개발 수장 돌연 사퇴, 왜?

(소프트웨어중심차·SDV)

3년간 R&D 비용 꾸준히 오르고  
차값 인상 등 가성비 악화 영향  
담당상무, 지원축소에 퇴사한듯  
KGM "SDV·전동화 지속개발"

KGM모빌리티(이하 KGM)의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개발을 주도하던 수장이 회사를 떠났다. 업계에서는 KGM이 SDV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KGM에서 SDV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담당

하던 A 상무가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당시 A 상무는 KGM의 연구개발 조직인 기술연구소 산하 E/E(전기/전자)센터에서 전자통합 개발사업부장을 맡고 있었다. SD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전반을 주도하는 직책이다.

A 상무는 지난해 4월 KGM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SDV 개발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당시 KGM은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전동화, SDV,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

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소개했는데, 이 발표를 A 상무가 맡았다.

A 상무가 회사를 떠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주체도 두 곳으로 분산됐다. 기존에는 A 상무가 속해있던 E/E 센터가 SD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SDV, 자율주행 등은 미래모빌리티센터가, 인포테인먼트·전장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E/E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DV 개발에 어려움을 겪자 수장이 회사를 떠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개발 비용은 물론 SDV 적

용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회사 측이 SDV 개발 속도를 조절했고, 이에 수장이 퇴사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KGM이 SDV 관련 컨설팅을 받았는데, 투자액이 3000억 원 이상 필요하며 차량 가격도 20~30% 올려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로 SDV를 구현하려 했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GM은 이미 연구개발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KGM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4.2%에서 4.8%까지 꾸준히 올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연구개발비는 약 1790억 원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4%였다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SDV 적용 차량을 상품화하더라도 판매 가격을 높여야 한다면 KGM의 '가성비' 전략을 구사하기도 어려워진다.

다만 KGM은 지속적으로 SDV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SDV, 자율주행, 전동화 등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재 기자 2mj@



삼성전자 2024년형 Neo QLED 8K TV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M

## "유류세 인하 끝나면 기름값 뿔텐데..." 정유사들, 징벌적 황재세 도입 우려

다음달말 추가 연장 없이 종료 전망  
정치권 초과 이익환수 논의 가능성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원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황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정유사들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인 20일 기준 배럴당 85.20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초 최고점인 지난달 5일(90.89달러)과 비교하면 5.69원 내렸다. 국내 기름값도 지난주 7주 만에 하락 전환한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02.9원으로, 전주 대비 8.9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는 14.3원 내린 1546.5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에 적용되는 인하 폭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2만

5000원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유사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황재세'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황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 조치 해제 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국민 여론이 정유사에 대한 황재세 도입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 여론이 황재세 도입으로 기울면 여당에서도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어진다.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유사가 유가가 오를 때 가격을 칼같이 올리고, 유가 하락이나 유류세 인하 조치 시기에 가격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 폭리를 챙긴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국민 여론이 정유사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황재세 도입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삼성 1분기 글로벌 TV 시장 1위...LG, 올레드 1위

매출 점유율 29%, 수량 기준 19%  
프리미엄·초대형 TV 앞세워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선두 질주  
LG, 올레드 출하량 52% 차지

삼성전자가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29.3%, 수량 기준 18.7%로 모두 1위에 올랐다. 매출 기준 2위는 점유율 16.6%를 기록한 LG전자, 수량 기준 2위는 점유율 12.6%의 중국 TCL이다. 삼성전자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53.2%)과 1500달러 이상 범용 TV 시장(55.2%)에서 모두 매출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초대형 시장인 75형 이상 및 80형 이상 시장에서도 각각 매출 기준 점유율 29.6%, 34.4%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올해를 인공지능(AI) TV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1분기에 네오(Neo) QLED 등 초대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2006년 첫 1위 달성 이후 작년까지 1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2022년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재출시한 올레드 TV는 누적 판매 160만대를 돌파했다. 1분기에 매출 기준 점유율 27.0%로 2위에 올랐다.

LG전자는 1분기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약 52%를 기록하며 명가 지위를 공고히 했다. 옴디아 집계 기준 올해 1분기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62만7000대에 달한다.

LG전자는 70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약 53%의 출하량 점유율을 기록하며 초대형·프리미엄 TV 시장 내 리더십을 이어갔다. 80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현존 유일한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TV를 앞세워 58.4%의 출하량 점유율로 독보적 1위를 지켰다.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와 함께 전체 올레드 TV 시장 내 70형 이상 초대형 TV의 출하량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p) 상승한 14.1%로, 역대 1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글로벌 TV 시장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 줄어든 4642만15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올레드 TV의 출하량은 121만대 수준을 기록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LS일렉트릭 부산 공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2배로

803억 들여 내년 9월까지 공장 증설  
연간 4000억원 규모...美 수요 대응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송변전 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 부산사업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CAPA)을 2배 늘린다.

LS일렉트릭은 21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사업장에 총 803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기로 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1만 3223㎡(약 4000평) 규모의 유희부지에 공장을 신축(건축면적 4827㎡), 진공건조로(VPD, Vapor Phase Drying) 2기를 동시에 증설하고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초고압 변압기 전 생산공정을 갖추게 된다.

VPD는 초고압 변압기 내부를 고진공 상태에서 72시간 이상 120℃를 유지해 수분을 제거하는 진공건조설비로 진공건조를 통해 절연성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변압기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은 그동안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보유, 국내외 시장에 대응해왔다. 최근 해외 수요 폭증에 따라 오는 2026년 물량까지 수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내년 9월까지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으로 CAPA를 2배 늘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년 확대되는 해외 초고압 변압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 현대차·기아, 7개 대학과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맞손

현대자동차·기아가 전동화 부품 소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우수 대학들과 공동 연구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에 '현대자동차그룹 자성재료 공동연구실'을 설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연구실은 전동화 시대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소재를 대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과 같은 희토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희토

류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소재 기술, 사용한 부품을 회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재순환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원 공급 리스크에 대응하고 전기차 소재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개의 대학 및 산학협력 전문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총 3년간 공동연구실을 운영하며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강문정 기자 kangmj@



# AI 안전·신뢰 확보.....서울 정상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 촉구

## 과기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을 개발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AI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잇힐 권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AI 안전성 확보와 관련,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디지털질서 '마스터플랜' 수립 =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산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음 권리 보호 △잇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

## 8대 핵심과제·12개 정책과제 수립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가짜뉴스 대응·비대면 진료 포함

## IT기업 'AI서울 정상회의' 총출동

'AI 기본법' 마련 못해 결림들 우려

무화를 위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는 목표다.

여기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보안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스마트발리지 등 디지털포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 배경: 디지털 심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본격 추진

• 내용: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담은 20대 정책과제 도출

### 8대 핵심 과제

- 1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 2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3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4 디지털 재산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5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6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7 연결되지 않음 권리 보호
- 8 잇힐 권리 보장

### 12대 정책 과제

- 1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노동권리 보장
- 2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 3 디지털 심화에 대응한 사회 시스템 정비
- 4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
- 5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비
- 6 메타버스 경제 규범 정비
- 7 데이터 개방 촉진
- 8 분야별 AI 활용 기준 및 원칙 정립
- 9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 10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 11 디지털 자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 12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 ◇AI 정상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 선도

목표 =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날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백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 호주 등 9개국 정상(대리 참석 포함)과 유엔·유럽연합(EU) 등 국제기

구수장 그리고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빅테크 기업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더불어 삼성과 네이버가 포함됐다.

22일 오후에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이종호 장관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 기술부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이 참석한다. 글로벌 업체로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함께한다.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글로벌 국가 및 선도업체와 함께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처럼 AI 안전성 논의를 넘어 AI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이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를 세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조차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반면 AI 주요국들은 국제 표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세웠으며,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임유진 기자 newjean@

# '5대 우주강국' 부푼 꿈 쏜다...우수인재 맞이할 준비 '척척'

## 르포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앞둔 경남사천 임시청사

"경상남도 사천시가 꿈꾸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27일 개청을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부진 의지가 느껴진다. 개청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20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했다. 사천 앞바다를 품은 우주항공청은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사남면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2026년까지 2년 간 임차해 마련됐다. 총 9개층 중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8개층, 전용면적 4860㎡(1470평)는 아직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위성부서, 우주과학탐사부서, 항공혁신부서가 들어설 3층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책상 배치 등 사무환경 조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2일까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무환경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주항공 복합도시 마련 최선 아파트부터 사무실 준비 마무리 가족동반 이주 지원책도 내놔

고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은 국적 불문, 상한선 없는 연봉을 내걸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실행을 총괄할 임무본부장에 NASA 출신 존리 전 고위임원을 발탁하며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하겠

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110명~120명 규모로 개청한 뒤 연말까지 293명의 정원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50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경쟁률이 16:1이었으며 국장·과장급에 해당하는 부문장과 프로그램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며 "수요는 충분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리 본부장 내정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주할 숙소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다"며 "법무부 출입관리소와 소통하며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정주 요건은 가급적 사천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해서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상도와 사천시와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청은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직원 웰컴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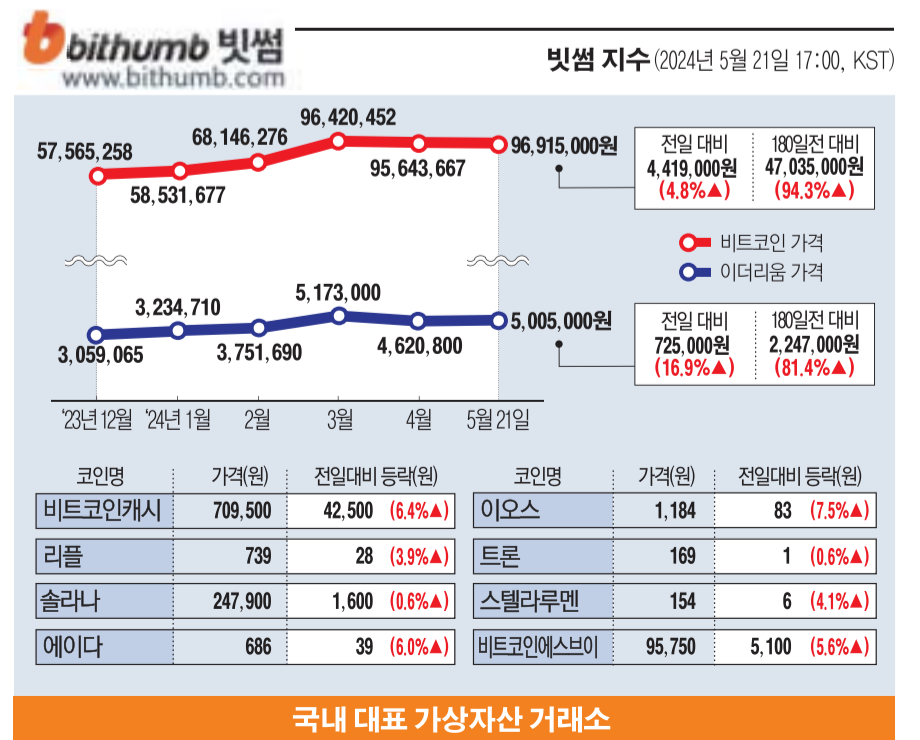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전경(왼쪽 사진)과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민간 아파트 사천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사천시에서 별도로 민간 아파트 50채를 제공한다.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사천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는 59㎡(24평형) 아파트 40채, 76㎡(29평형) 아파트 10채 총 50채다. 여기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까지 버스로 10분 소요됐다. 이 단장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의 관사도 청사 근처로 별도로 마련했다"며 "평수는 29평 내외"라고 설명했다.

파트 180채를 제공하고 사천시에서 별도로 민간 아파트 50채를 제공한다.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사천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는 59㎡(24평형) 아파트 40채, 76㎡(29평형) 아파트 10채 총 50채다. 여기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까지 버스로 10분 소요됐다. 이 단장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의 관사도 청사 근처로 별도로 마련했다"며 "평수는 29평 내외"라고 설명했다.



## 업비트 '신뢰할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세계 4위에

## 포브스 선정... 투명성 등 높은 점수

두나무는 자사가 운영중인 거래소 업비트가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포브스는 우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등이 제공한 총 646

개 사업자의 내부 통제 및 보안 역량 등을 평가해 뒤 최종 20개 사업자를 추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매겼다. 업비트는 이번 평가에서 7.4점(10점 만점)을 기록하며 미국의 코인베이스, CME그룹, 로빈후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업비트는 투명성과 저렴한 거래 수수료, 회계 건전성 등에서 높은 점

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비트는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가 실시한 2024년 1분기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도 국내 1위, 글로벌 8위로 나타났다. 카이코는 업비트의 관리 및 보안 역량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평가에 대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국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 리가캠·알테오젠, 올해 '마의 1000억' 허들 넘을까

〈年매출〉

## 양사 1분기 매출 '청신호'

리가캠바이오와 알테오젠이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 제약업계에서도 매출 10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곳이 많음에도,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가캠바이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10억 원으로 지난해(77억 원)보다 300%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9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 대부분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제약사 안센과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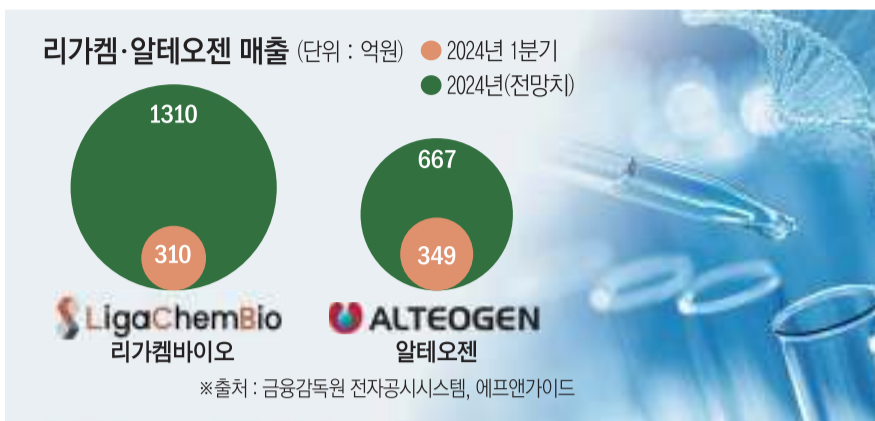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는 안센과 총 2조2000억 원 규모로 TROP2-ADC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300억 원 중 262억 원이 1분기 매출

리가캠, 작년보다 300% 성장  
올해 계약금 780억 수취 남아

알테오젠, 매출 349억원 기록  
실적 좋지만 계획된 기술료 없어

에 반영됐다. 남은 계약금 1000억 원은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매출에 반영된다.

따라서 리가캠바이오는 올해 안센과의 기술이전 계약금 780억 원을 더 수취하게 된다. 여기에 의약사업부문 매출 연간 200억 원이 발생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리가캠바이오의 매출을 131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앞서 기술이전 한 후보물질이 새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고,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도 있다. 알테오젠도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49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103억 원) 대비 238% 늘었다. 회사에 따르면 1분기 실적 상승 이유로 계약금과 기술용역 금액이 꼽힌다. 알테오젠은 올해 2월 MSD와 정맥주

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하이브로자임 기술 'ALT-B4'의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금 2000만 달러(약 272억 원)를 받았다. 또 파트너사와 체결한 생산 관련 기술용역 330만 달러(약 45억 원)를 수령했다. 1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

기 이후에는 계획된 기술료가 없어 올해 매출은 1000억 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매출 965억 원으로 아쉽게 10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알테오젠 매출을 667억 원으로 예상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기술료는 다 받았다. 기술료를 추가로 받으려면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임상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추가 기술료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에프앤가이드는 알테오젠의 2025년 매출을 1390억 원으로 내다봤다. 알테오젠은 첫 자체 품목 테르가제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향후 해당 제품이 출시되고 파트너사의 임상이 진척되면 추가 마일스톤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첫 메시지 "과감한 M&A 통해 사업 다각화"

### 임직원에 성장전략 제시 "AI 기술로 업무 효율성 향상"

임종훈(사진)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21일 대표 취임 후 첫 성장 전략 메시지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임 대표이사는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란 메시지에서 "한미그룹은 제약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미사이언스가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중 하나인 '온라인팜'을 중심으로 유통 사업의 성장을 가속하고,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사업 부문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해

선택과 집중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입에 필요한 리소스와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 내부 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그룹사 임원이 모인 인공지능(AI) 세미나에서 AI 적용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민첩한 업무 대응을 주문했다. 임 대표이사는 "임직원 각자 역할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는 의미 있는 인센티브와 지속적인 교육 기회로 보상하겠다. 임직원들의 지원과 참여가 한미사이언스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므로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동성제약, 유산균 전문기업 프로비와 MOU

### 특허 균주 활용한 제품 국내 출시

동성제약은 최근 스웨덴 유산균 기업 프로비(Probi)와 유산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프로비는 특허 유산균 균주를 동성제약에 공급하고, 동성제약은 프로비의 균주를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프로비는 스웨덴 유산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양사는 프로비의 특허 균주인 위장 건강에 특화된 Lp299v와 이비인후과에 특화된 Bliss 균주, 뇌 건강에 특화된 Sensia 균주, 뼈 건강에 특화된 Osteo 균주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동성제약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전문 브랜드 'DS-BIO(DS바이오)'에 대한 리브랜딩과 프로비 균주를 활용한 신



동성제약 이양구(왼쪽) 대표이사와 아니타 호튼 프로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성제약

제품을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는 "DS바이오 제품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개발과 공급에 힘쓸 예정"이라며 "프로비의 증명된 균주를 선별하고 활용해 정확한 타겟팅과 우수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mRNA 가치 급부상... K바이오, 기술개발 쟁점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RNA 기술은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되며 최초로 상업화됐지만, 바이러스와 암 등 다양한 질병 치료제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mRNA 기술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한 유럽특허청 분쟁에서 최종 승리해 이목이 쏠렸다. 현재 독일·네덜란드·벨기에·영국 등에서도 mRNA 특허 관련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이번 유럽특허청 판단에 따라 모더나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에서 mRNA 기술 선구자의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다른 국가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더나는 mRNA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로 2022년 184억 달러(25조1123억 원)를 벌었다. 이는 같은 해 국내 백신 시장 규모 약 3억 7300달러(5090억 원)의 49배에 달한다.

mR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 새겨진 단백질질을 인체에 주입, 세포가 이를 학습하게 만드는 기전이다. 특히 mRNA 기술은 기존 백신보다 새로운 백신을 신속히 개발·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업계는 암·희귀질환 등 정복되지 않은 질병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모더나는 MSD와

### 국내 mRNA 연구·개발

※ 출처: 각사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	SK바이오사이언스
기업	한미약품, 에스티팜, 이셀, GC녹십자, 동아에스티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CEPI 및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 협력
활동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STP2104' 1상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EG-COVII' 1상	

### 모더나 해당 백신 1년에 25조 수억 암·희귀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성 SK바사 등 국내 기업 연구 지속 정부, 국산화 목표로 지원 약속

mRNA 기술에 기반해 수술 후 재발을 막는 '암 백신' 후보물질 'mRNA-4157/V940'을 개발 중이다.

국내 기업도 mRNA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2021년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을 구성해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동아에스티, 이셀 등이다. 에스티팜이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은 현재 1상을 마무리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도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에 나섰다. 여기엔 큐라티스,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등이 참여했다. 현재 아이진이 mRNA 코로나19 백신 후

보물질 'EG-COVII'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mRNA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최대 1억4000만 달러(1910억 원)를 지원받는 내용의 mRNA 백신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도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협약을 맺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는 mRNA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까지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mRNA 기술이 적용된 백신을 개발해, 향후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들은 "mRNA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면 향후 미중충 수요가 큰 질환 분야에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잠재적 가치가 크다. 핵심 기술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연구를 가속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 삼바에피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프비즈' 美 FDA 최초 허가

### 안구 내 비정상적인 혈관성장 예방 '매우 유사... 임상적으로 차이 없다'

삼삼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오프비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FDA는 삼삼바이오에피스의 오프비즈와 인도바이콘로지스의 의사필리르를 최초의 아일리아 바이오시

밀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삼 바이오에피스가 FDA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6개로 늘었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과 독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등 안과질환 치료제다.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제해 안구 내 비정상적인 혈관성장 예방 작용을 한다. VEGF를 차단해 망막 손상을 늦추거나 줄이고 시력 보존에 도움을 준다. 리제네론에 따르면 지난해 아일리아의 전 세계 매출은 92억1480만 달러

(약 12조 원), 미국 시장 매출은 62%인 57억1960만 달러(약 8조 원)다.

FDA는 오프비즈와 의사필리르가 아일리아와 매우 유사하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허가 이유를 제시했다. 삼삼바이오에피스는 오프비즈에 대한 상호교환성도 확보해 약국에서 교차처방이 가능하다. 상호교환성을 확보하면 의사의 별다른 개입 없이 약국에서 아일리아 대신 오프비즈를 처방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전 객실 스위트급·사계절 온수풀... 720억 들여 大변신

## 가보니 해비치리조트 제주

20일 제주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여 주행 끝에 도착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 동남부 해안가 표선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비치리조트 제주(해비치 제주)'가 시야에 들어왔다. 붉은색 지붕의 리조트 건물 바로 앞 울창한 야자수가 서 있는 넓은 마당, 야외수영장 턱에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2003년 개장했던 해비치 제주는 약 20년 만에 전면 개·보수에 돌입, 약 10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벌인 끝에 이달 29일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해비치 제주는 총 720억 원을 투입해 리뉴얼한 끝에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로 탈바꿈했다. 10개 타입의 스위트룸 215실, 330㎡(100평) 규모 라운지, 야외수영장,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리조트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리조트 1층에는 다양한 식품(F&B) 시설과 클럽 라운지가 제일 먼저 투숙객을 반긴다. '모루 라운지'는 마스터 스위트 이상 투숙객과 라운지 전용 패키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클럽 라운

서귀포 표선 위치... 29일 재개관 20년만에 10개월 걸쳐 리뉴얼 표선바다 품은 대형 야외수영장 215개 객실 공간감 '업그레이드'

지다. 57석을 갖춘 모루라운지에서는 아침엔 조식을, 낮엔 무제한 티, 저녁 시간엔 주류를 제공한다. 라운지 바로 옆 '이디(iidy)'는 조·중·석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올데이다이닝 바'다. 또한 제주산 식재료와 제철 해산물들을 활용한 정통 관서식 스키야키 식당 '메르&테르', 육류 및 한식전문 식당 '하노루'도 새로 문을 연다.

리조트 밖으로 나오자, 해비치 제주의 최대 강점인 제주 표선바다를 품은 대형 야외수영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영장 곳곳 선베드와 카바나 덕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한층 배가되는 모습이었다. 야외수영장은 리뉴얼 전에는 여름시즌만 운영했지만, 리뉴얼 이후 사계절 즐길 수



1 해비치 리조트 제주 부대시설인 야외 수영장.  
2 해비치 리조트 객실에서 본 바깥 조망.  
3 시그니처 노을 객실의 욕조 공간.

있는 온수풀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해비치 제주는 10가지 타입의 215개 전 객실을 스위트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객실 내 취사를 하는 고객이 줄면서 주방 공간을 줄이고, 거실과 방 면적을 넓혔다. 기본 객실 싹평수가 호텔 스위트룸 크기에 맞먹는 63㎡(19평)로, 넓은 공간감이 탁월하다. 통유리 창문 너머 아름다운 자연 뷰도

일품이다. 해비치 제주는 통상 호텔에서만 제공하던 룸 서비스도 새로 추가, 객실에서 편안한 식사도 가능하다.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객실 제한 인원도 조정했다. 기존엔 객실 타입별 최대 인원이 6~8인이었지만, 리뉴얼 후엔 최대 4인으로 줄였다. 김민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는 "과거엔 대가족이 한 객실에 묵었다면, 최근엔 4인 이하 가족여

행객이 가장 많고, 커플 여행객도 상당수"라며 "변화된 여행객 특성을 반영해 방 구조를 새로 짰다"고 설명했다. 추천 객실은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 돌·바람·노을 3곳이다. 특히 시그니처 노을의 경우, 정중앙의 욕조가 압권이다. 바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몸을 담글 수 있어, 하루의 피로를 푸는 힐링 공간이다.

해비치 제주는 동제주 최고의 힐링 휴양지로만 들겠다는 김 대표의 포부에 따라, 체험 콘텐츠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Customer experience) 팀'도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재충전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있다. 리조트 앞 해안가를 달리는 '선라이즈 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바이크라이딩', 계절별 추천 숲길이나 오름을 걷는 '포레스트 트레킹', '선셋 요가 및 심잉블 테라피' 등이 있다. 주 3회 운영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시 투숙객은 무료다.

제주=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꽃 향기 자유이용권... 에버랜드 '가든패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장미축제 기간 '가든패스'(Garden Pass)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든패스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720품종 300만 송이 장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제 특별 이용권이다. 정문에 마련된 '가든패스 전용 게이트'로 입장. 원하는 시간만큼 장미원을 포함해 포시즌스가든, 동물원, 상품점 등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만큼 1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가든패스 예약 시 최초 4만 원을 선결제 하면 이용시간에 따라 차액이 자동 환급된다. 에버랜드 호텔미술관 50% 할인권도 함께 증정한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 스몰 럭셔리 vs 가성비... 올여름 빙수대전

고물가 시대, 여름대표 디저트인 빙수 시장에서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특급호텔들은 '스몰 럭셔리' 전략으로 프리미엄 빙수를 출시하는 반면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는 1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신제품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올여름 시즌 신제품 빙수 5종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1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출시 18일 만에 누적 판매량은 20만 개를 돌파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 빙수' 3종은 전체 빙수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물가시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 수요가 급증하자 카페프랜차이즈 업체도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빙수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디야커피가 올여름을 맞아 선보인 빙수 신제품은 '눈꽃빙수' 2종인 팔인절미 눈꽃빙수, 애플망고 눈꽃빙수와 '1인빙수' 3종인 팔인절미 빙수, 망고요거틀라 빙수, 초당옥수수 빙수다. 팔인절미 눈꽃빙수와 애플망고 눈꽃빙수 2종의 가격은 1만1800원이며,

### 각 프랜차이즈 대표 빙수 가격

프랜차이즈	제품명	가격
이디야	팔인절미 1인 빙수	6300원
엔제리너스	팔빙수	7000원
배스킨라빈스	바사삭 쌀튀밥 팔빙수	9800원
파리바게뜨	복숭아 와르르 빙수	1만1900원
투썸플레이스	우리 팔 빙수	1만2000원

\* 출처: 각사



고물가에 소비 양극화 뚜렷해져 6300원부터 13만원까지 극과 극

1인 빙수는 각각 6300원이다. 엔제리너스는 팔 베이스의 빙수 2종과 복숭아를 활용한 빙수 등 총 3종을 선보였다. 팔빙수 2종의 가격대는 각각 7000원, 8000원이며 복숭아 빙수는 1만4000원이다. 파리바게뜨는 '복숭아와 르르 빙수'와 '망고빙수'를 각각 1만9000원에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도 팔앙금과 인절미를 올린 '바사삭 쌀튀밥 팔빙수'(9800원)와 망고를 활용한 '솔티크림 망고빙수'(1만1900원)를 내놨다. 투썸플레이스는 미니 케이크 모양으로 쌓은 우유 얼음에 애플망고

를 올린 '애플망고 빙수'를 선보였다. 가격은 1만4000원이다. 함께 출시된 '우리 팔 빙수'도 1만2000원으로 가성비 비를 자랑한다.

반면 호텔업체는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빙수를 내세워 여름 빙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시즌 호텔 빙수 중 최고가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망고빙수다. 시그니엘 호텔의 올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은 13만 원으로, 지난해 12만7000원보다 2.4% 올랐다. 포시즌스 호텔 애플망고 빙수의 가격도 12만6000원으로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애플망고 빙수'의 원조로 꼽히는 신라호텔의 빙수는 올해 10만2000원에 판매 중이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연일 치솟는 고물가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치킨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격 인상에 돌입, 배달비까지 합하면 '치킨 3만 원 시대'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제너시스BBQ는 23일부터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판매 가격을 3000원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BBQ가 치킨 가격을 인상하기는 2년 만이다. 이번에 가격이 오르는 치킨 제품은 총 110개 제품 중 23개로, 평균 판매가격인

## BBQ '황금올리브치킨' 3000원 인상... 치킨 3만원 시대

상률은 6.3%다. 인기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콤보'는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이 된다. 별도의 할인 없이 배달비까지 내면 치킨 한 마리당 가격이 3만 원대에 육박하는 셈이다. 다만 전체 판매 제품의 절반인 56개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 '황금올리브치킨 속안

심' '간풍치킨' '자메이카소떡만나치킨' 등 치킨류(30개) 제품과 피자·버거 등 사이드 메뉴 전체(26개)가 이에 해당된다. 31개 제품은 증량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를 봤다.

BBQ는 "지속되는 원·부재료 가격과 인건비, 배달업 중개 수수료 및 배달비(라이더 비용) 상승 등으로 가맹점 수익

이 크게 악화돼 수익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판매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BBQ 자체 조사결과 가맹점(매출 상위 40% 점포 기준)의 올해 4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 운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올리브유

가격도 캔당 16만 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스페인 등 올리브유 주산지의 극심한 가뭄으로 국제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매출 기준 4위 치킨 프랜차이즈 굿네가 고추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일제히 인상했다. 또 푸라닭 치킨은 단품과 세트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다만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교촌과 bhc는 올해 추가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kjj42@

# 주금공 'PF 보증' 사고액 최대... "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증을 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손실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적정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고사업장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사고액도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4개월 만에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액은 2410억원이나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금액(1791억원) 보다 34.6% 증가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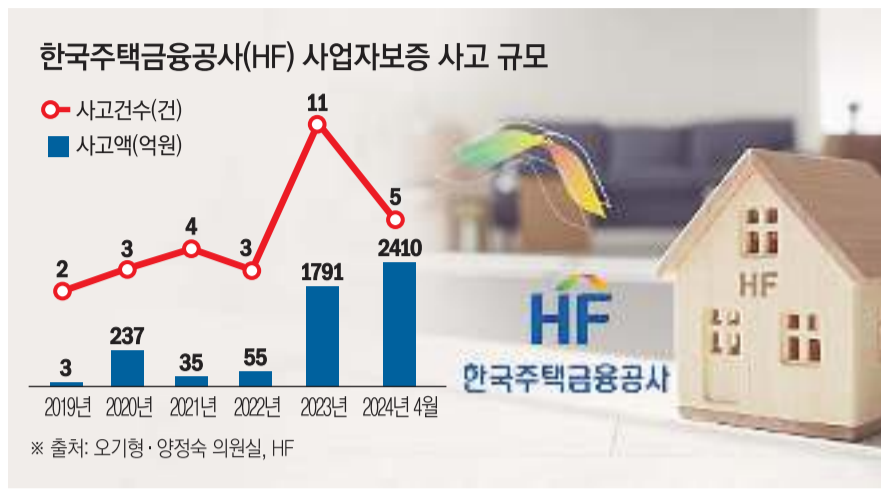
주택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올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 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 증가 사고액 2410억원... 35% 급증

내달 PF 사업장 1차 사업평가 보증규모 25兆서 30兆로 늘어 "금융정책기관 손실액 확대 우려"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금공은 해당 사업장이 빌린 돈의 90~100%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다.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으로 △지난해 1791억원(11건)을 돌파했다. 주금공이



대신 떠안아 갚아준 공사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다음달부터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주금공이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주금공과 주택도시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규모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렸다. 주택 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

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당국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예정인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을 공급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금융정책기관의 한정된 자금을 바탕으로 보증을 확대할 경우 사후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주금공의 부채비율은 647.60%로 치솟았다. 이는 전년(447.4%)보다 20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규모가 갑자기 확 늘면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의)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상황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보증규모를 늘리되 적정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도 균형감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유하영 기자 haha@

〈금융감독원장〉

## '부동산 PF 해결사' 나선 이복현... 29일 건설업계와 만난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이달 29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협회 등 협회 관계자들과 주요 건설사 실무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IR)에서 "부동산 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작심 발언한 지 2주 만에 건설업계와의 만남인 셈이다.

앞서 13일 금융당국은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기준은 당장 다음달 1차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

건설협·주요 건설사 실무진 만나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직접 설득 23일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다가 갑자기 '만기 3회 이상 연장'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도 '부실 사업장'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PF 대책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 온 이원장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차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영 기자 moon@·김범근 기자 nova@

〈유동성거버리지비율〉

##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 7월부터 97.5% 적용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저축銀·여전·금투는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한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의 경우 올해 말까지 97.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올 4분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와 여

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10%p 완화,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등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금투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편비중완화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NCR 위함값 완화 역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올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영 기자 moon@

"5년만 유지하면 최저적립액 보증해드려요"

##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



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 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키슈랑스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김재은 기자 dove@

## 산업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 발행

2년 만기·금리 3.54%

KDB산업은행은 21일 친환경 사업자금 지원 확대와 한국형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 원

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은행권 기준 역대 최대다. 만기는 2년이며 발행금리는 3.54%다.

조달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성 검증을 획득한 이차전지 소재산업, 친환경운송, 자원순환 등 녹색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하여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나이스신용평가의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문성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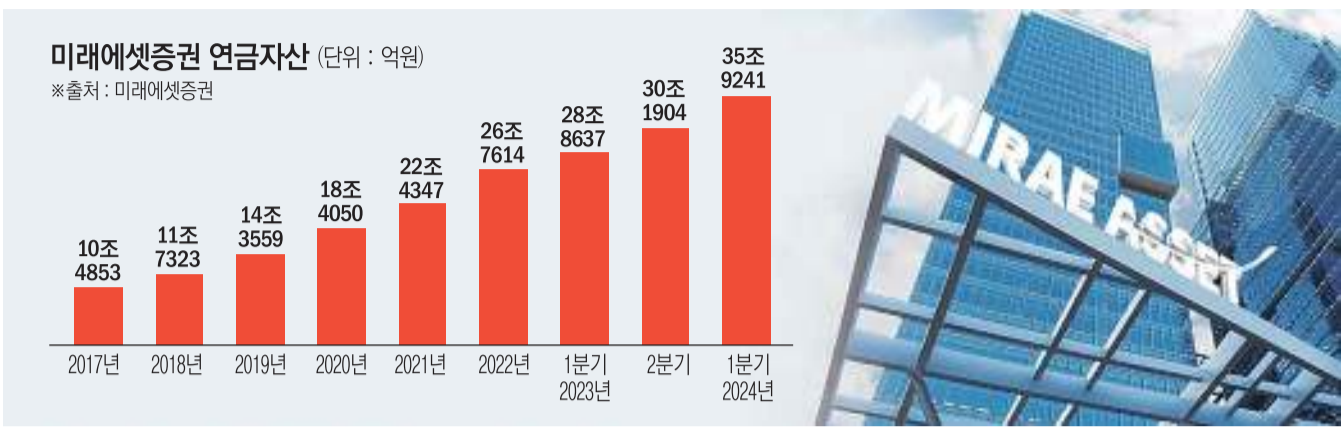
〈연금자산〉

# 미래에셋증권 ‘연금강자’ 쏘기… 1년새 7兆 늘며 35兆 돌파

글로벌 자산배분·안정적 수익률 특화된 권리지서비스로 적립금 급증 개인연금 업계 첫 10兆 돌파 기업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자산이 1년새 7조 원 증가하며, 35조 원을 돌파했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자산배분과 안정적 수익률, 특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2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자산 합계 규모는 35조9241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말 28조8637억 원에서 1년 새 7조 원이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자산은 2017년 말 10조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섰고 작년 2분기 말에는 30조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



하고 있다. 연평균성장률은 약 22% 수준이다. 이 추세면 내년 말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가입자의 자산배분과 운용을 돕는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MP 구독, 로보어드바이저)로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작년 말 기준 1조6500억 원 규모다. MP구독서비스 고객 적립금이 6909억 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9614억 원

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의 비연리금보장상품 공시수익률 분석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확정기여형(DC)에서 14.9%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도 14.86%로 1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연금 또한 증권업 최초로 적립금 1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 10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3달 만에 1조 원이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에 특화된 상품을 라인업하고, 개인연금 등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해 고객 수익률 관리에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개인연금 제도 변화에 맞춰 특화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주요했다. 2000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과 2013년 이후 가입 종료된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으로만 투자가 가능했던 연금계좌다. 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연금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미래에셋증권이 연금강자로 올라선 계기가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운용하는 상품인 ‘개인연금랩’, 주기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개인연금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연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투자가 어렵거나 자산 관리에 신경 쓰기 힘든 고객이 운용을 맡길 수 있는 상품들이다. 10월에는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시작하며 연금자산 관리 명가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연금’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형 연금자산의 매니브가 일어나고 있으며,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움직임은 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캐서린 콕스(왼쪽부터) 슈로더 글로벌 기관 투자부문 대표, 머빈 탕 슈로더 아태지역(APAC) 지속 가능성 부문 대표, 정은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한국법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슈로더투자신탁운용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운용업계 트렌드, 사모자산·대체투자 확대”

“자산운용업계는 비용 상승과 거세지는 수수료 압박으로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캐서린 콕스 슈로더 글로벌 기관 사업 부문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의 ‘2024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업계가 더 강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콕스 대표는 투자 트렌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며 “현금으로 가는 흐름이 2022-2023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투자자의 경우 거의 2조 달러 이상이 현금 자산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올해는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리스크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모자산의 대중화로 준 개방형(Semi-liquid), 중도 환매 가능(evergreen) 대체 투자의

###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세미나

금리인하 기대 커지며 자산이동 기후펀드 아시아에서 큰 성장세

혁신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대체 자산 투자시의 유용성 관리 편의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콕스 대표는 “사모자산과 대체 자산이 기관투자자 주도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성장 잠재력이 워낙 풍부해서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등도 사모자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 이를 ‘사모자산의 대중화’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머빈 탕 슈로더 아시아태평양(APAC) 지속가능성 부문 대표는 슈로더의 투자 철학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슈로더그룹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투자 과정에서 전통적인 금융 분석과는 별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했다.

슈로더그룹은 ESG에서 중요한 요

소로 꼽히는 스투어드십 코드를 업계 최초(2010년)로 도입한 후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38%) △인적자원관리(26%) △거버넌스(15%) 테마에서 활발한 경영 관여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탕 대표는 기후펀드 시장의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유럽이 독보적으로 지속가능성펀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후펀드는 아시아에서 큰 성장세를 보인다”며 “기후 전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이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로는 기후 솔루션과 청정에너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은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슈로더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며 “슈로더그룹과 슈로더 그룹의 한국법인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시장에서의 사모 자산의 확대를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더디 크는 로봇株 ‘반등 스위치’ ON

AI·로봇 시장 커지며 기대감 증폭

-37.73%. 지난해 11월 증시에 입성한 두산로보틱스가 올해 들어 21일까지 기록한 수익률이다. 증시 문턱을 밟자마자 단숨에 ‘로봇 대장주’ 자리를 꿰찼지만,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때 11만 원대를 웃돌던 주가는 이날 7만2300원으로 떨어졌다.

로봇주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멀어지고, ‘지능형 로봇법’ 등 정책 수혜도 더디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21일 두산로보틱스는 1.90% 하락했다. 지난해 말 11만 6100원 하던 주가는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이날 17만2700원에 거래를 마쳐 올해 들어 1.8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진로봇(-28%)와 티로보틱스(-17.32%), 뉴로메카(-13.73%) 등의 수익률도 부진하다. 지난 3월 상장한 엔젤로보틱스는 시초가 대비 34.36% 하락했다.

부진한 성장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두산로보틱스는 1분기 매출액 109억 원

에 영업손 69억 원을 기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매출액 30억 원에 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기업의 투자 효과가 가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초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한 뒤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여러 국내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 외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자회사 혹은 계열사 형태로 로봇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월,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 본사에 방문해 “사람과 로봇의 협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로봇은 그룹의 최첨단 산업”이라며 “시장을 선도할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승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 시장의 개화 속도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발전과 다양한 업종에서 로봇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정 시점 이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 美증시 결제주기 단축… 금감원 “거래점검 완료”

오는 28일부터 미국 증시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차질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증시 결제주기는 이달 28일부터 거래일 이후 이틀(T+2)에서 하루(T+1)로 짧아질 예정이다.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 기준 T+3일→T+2일)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

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 기준 T+3일→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1조 돌파 ETF 또 나왔다… 한투운용 ‘S&P ETF’ 달성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S&P 50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 500 ETF의 순자산액은 전날 기준 1조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의 순자산

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ACE ETF 중에서는 두 번째다.

ACE 미국S&P500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품이다. S&P500 지수는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과 유

동성 등 기준을 충족한 500개 핵심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연간 분배율은 동일 유형 대비 높은 편이다. ACE 미국S&P500 ETF는 연간 분배율을 1.2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 지수를 추종하면서 배당을 시행하는 ETF 상품이 기록 중인 연 분배율(0.95%)을 웃도는 수준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 GoodJob



“  
취업의 문,  
KB굿잡에서  
함께 열어요!  
”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  
KB굿잡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취업의 걱정은 덜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KB굿잡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2024 제 1 차

#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2024년 5월 27일(월) 코엑스 D홀

## KB굿잡 취업박람회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5천 3백여 개의 우수기업과 118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8천여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굿잡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에서 확인하세요.

- 주최** KB국민은행
- 주관**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국무역협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SDAQ 코스닥협회,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력고속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sba 한국산업단지공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폴리텍대학
- 후원**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KB금융공익재단

#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로 역부족"

최근 청약단지 대부분 한자릿수 2년전 100대1 육박 상황과 대조 임대료 높고 매매와 별 차이없어 공사원가 상승 속 민간임대 공급 건설사 입장서도 유인책 안돼 "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민간임대 아파트가 소비자 외면에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세 대안 중 하나인 민간임대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수요가 뜸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은 오르지만, 매매값은 약세를 지속하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퍼스트' 전용면적 84A㎡형 경쟁률은 5월 3.3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진행한 청약 당시 같은 평형 경쟁률 7.91대 1보다 되려 하락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한시적으로 분양 전환 우선권까지 부여했지만, 수요자 모집엔 실패했다.

또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인천 '영종유승한내들 스카이2차'와 민간임대 단지 대구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 모두 지난달과 이달 청약 접수를 진행했지만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청약 경쟁률

지역	단지명	유형	평형	경쟁률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퍼스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84A	4월: 7.91대 1 / 5월: 3.3대 1
인천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	83A	4월 2.83대 1 / 5월: 6.57대 1
대구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민간임대	39	4월: 1.6대 1 / 5월: 2.45대 1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이는 과거 전셋값 급등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됐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2022년 7월 신정받은 서울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평균 9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3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역시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는 과거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세만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단지를 선택할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공공지원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 시세 대비 저렴해야 하지만, 현행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지 않다”며 “2021~2022년 집값 급등 시기와 달리, 최근처럼 집값이 보합이나 소폭 하락하는 시기에는 민간임대 대신 아예 매매에 나서는 수요가 더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퍼스트 전용 84㎡형 가격은 6억8000만~6억900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인근 은평뉴타운 기차촌11단지 전용 84㎡형의 이날 기준 매도 호가는 7억6000만 원부터

로 민간임대 단지 임대보증금과 가격 차이는 7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10년 뒤 분양 전환 우선권 등을 고려해도 매수가 더 유리한 셈이다.

여기에 공공자인 건설사도 최근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수익성이 높는데 공사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을 신설 계획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3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정기 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전용 85㎡ 초과 물량 공급 2년 뒤 '반토막'

### 희소성 커질 '중대형 아파트' 황금기 올까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가운데 넓은 아파트 수가 줄면 희소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누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2024~2026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기준 내년 전용 85㎡ 초과 물량은 내년 13.8%, 2026년에는 이보다도 40.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 이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39.5% 줄어들고 2026년에는 2025년보다 29.4% 감소한다.

2년 뒤 입주 물량 감소 폭이 중대형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축소는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아파트의 수도권 감소 폭은 내년과 2026년 각각 29.4%, 56%다. 지방은 내년 1.28%, 2026년 31.7%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있는데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보장, 수납공간 확충 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

내년 이후 14%·41% 계속 줄어 1인 주거면적은 16년새 1.3배로 중대형 타입 중심 분양 단지 주목 가구원 줄어 희소성 한계 지적도



전용면적 84~206㎡ 997가구 규모로 건설 중인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사진제공 GS건설

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호가 계속될 것”이라며 “넓은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당 주거 면적은 넓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처음 공개됐던 2006년 26.2㎡보다 1.3배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85㎡ 초과~102㎡ 이하 타입

은 5월 첫째 주 0.02% 오르며 유일하게 반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타입을 중심으로 한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들어서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다음 달 분양을 계획 중이다.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 규모다.

부산에서는 전용 94~247㎡ 998가구로 조성되는 '블랑썬74', 충북 청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전용 84~138㎡, 145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가 뜨거운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중대형은 공급이 적고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일부 상급지 등에 한정돼 다른 타입과 비교해 수요가 많지 않다”며 “중대형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구원 수 축소나 인구 감소세보다 빠르지 않다면 수요 대비 희소성이 크게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 HDC현산, 고려대와 '교육플랫폼 개발' 협약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 적용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려대와 지역사회 평생 교육과 청년 경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과 박희운 개발본부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류태호 고려대 사범대학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에는 교육 콘텐츠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주거 용지에 운영 예정인 웰니스 레지던스를 포함한 약 3000가구 규모의 입주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융합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려대와 지역사회 청년 경력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 내 청년 공공기여 시설 및 커리어 센터와 오피스 시설에 도입 예정인 공유 오피스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최익훈 대표는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최익훈(오른쪽)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지역사회 평생 교육과 청년 경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교류를 통해 미래 주거 모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총 4조5000억 원 규모로 복합 개발 프로젝트의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 등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최근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잇따르자

### 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20여곳 특별점검

균열·마감공사 등 시공품질 집중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에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별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구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문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사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정(지자체)이 부실별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방침이다. 국방부 역시 LH와 무주

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같은 전기차인데... 한국 오면 주행거리 짧아지는 이유



## BMW 전기차 'i5 eDrive40' 유럽 582km, 韓 459km 주행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BMW의 전기차 i5 eDrive40(사진)의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459km다. 그런데 같은 모델이 유럽에서는 주행거리 582km를 인증받았다. 같은 전기차인데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차이 난다. 국내 주행거리 인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만 오면 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걸까.

같은 전기차인데 국가별로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시험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가별 도로 환경에 맞춰 다른 시험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BMW i5 eDrive40은 유럽에서는 국제표준시험방식(WLTP)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WLTP는 UN 자동차 법규 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연비 측정 방법으로 201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심 운전에서의 효율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WLTP는 실내 실험실에서 차량을 차대동력계 위에 올려 평균 시속 47km, 최고 시속 130km로 총 23km 주행해 평가한다. 주행을 시작해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를 측정한다. 외부 온도나 배터리 상태, 공기 저항 등 사용 여부, 급가속 등의 변수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인증제도를 따른다. 유럽 WLTP처럼 실내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주행모드가 다르다. EPA는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멀티 사이클 테스트 방식(MCT)을 적용한다.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공조가 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주행거리를 산출한다.

도심 주행시험에서는 최고 시속 90km로 중간에 수십 번 정차하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달린다. 고속도로 주행시험에서는 정차 없이 최고 시속 96km로 주행한다. 이렇게 나온 두 가지 값의 결과를 5.5대 4.5 비율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값의 70%만 주행거리로 인정한다. 외부 온도 등 다양한 변수로 주행거리 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 유럽, 실내 차대동력계 위에서 평균 시속 47km로 23km 주행

### 美, 도심+고속도로에 공조기 가동 유럽 방식보다 10~15% 덜 가

### 韓 인증시험 까다롭기로 세계 톱 美 방식에 외부 온도까지 대입 타이어 크기 등에 따라 다르기도

업계에서는 EPA의 주행거리가 유럽 WLTP와 비교해 10~15% 짧다고 본다.

EPA 시험에는 고속도로 주행시험이 포함돼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고속주행 환경에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유럽 도심 주행에 초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교통 환경 특성상 고속 장거리 주행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내 주행거리 인증 기관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다. 미국 EPA 검사 방식과 유사하다. 도심과 고속도로 두 가지 주행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비중은 각각 5.5대 4.5 비율로 반영한다. EPA와 다른 것은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5-사이클(Cycle)' 보정식을 대입해 주행거리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5-사이클은 도심,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이다. 국내 전기차 인증 주행거리가 유럽 WLTP와 미국 EPA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오는 주요 이유다.

고온과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를 따로 구분해 인증하는 것도 한국뿐이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큰 국내 특성이 반영됐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온에 비해 저온에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고, 특히 초기 전기차는 전기차에 많이 취약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도 측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어의 크기나 저항값 등도 주행거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로 BMW i5 eDrive40의 경우 지난해 8월 첫 국내 인증 당시 주행거리가 399km로 측정됐다. 그러나 11월 재인증에서는 주행거리가 459km로 기존 대비 60km 늘었다. 기존에는 21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측정했으나 19인치 타이어로 새로 인증을 받으면서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 시험에서는 타이어마다 다른 저항값을 보정하기 위해 실도로에서 측정된 수치를 반영한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동력계에서 시험을 하기 전에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고유의 저항값을 측정한다"며 "그 저항값을 동력계에 반영해 실제 주행 시의 저항을 모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EPA나 유럽 WLTP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한 주행거리 인증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수입 전기차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은 WLTP에 비해 국내 주행거리가 30~40%가량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인증 결과에 비해 국내에서는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따라야만 하는 기준"이라며 "다만 이제는 소비자들도 인증 기관별로 주행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해서 구매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문정 기자 kangmj@

BMW 전기차 'i5' 국가별 주행거리 한국  459km

미국  475km

유럽  582km

## 전기차 배터리 폼팩터 경쟁, 게임체인저 떠오른 '원통형'

현재 안전성 높은 각형 주류 원통형, 에너지 밀도 5배 높여 LG엔솔·삼성SDI 양산 준비 양극재·동박 소재업체도 합승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왼쪽 사진)와 삼성SDI가 '차이나 사이클 쇼 2024'에서 공개한 원통형 배터리.

각사



전기차용 배터리는 폼팩터(형태)에 따라 크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뉜다. 폼팩터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차-배터리 업체들은 주력 제품과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해 폼팩터를 채택한다.

최근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폼팩터는 원통형이다. 하반기 양산을 공식화한 LG에너지솔루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한 삼성SDI 등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재업체도 원통형 배터리용 제품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7월

말부터 46파이(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를 양산한다. 이 제품은 니켈 함량이 95%인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단결정 양극재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동박 제품과 양산 설비를 고객사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원통형 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 형태의 배터리다. 부피는 작지만 용량과 에너지 밀도가 높

고,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원통형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하려면 수천 개에 달하는 배터리를 엮어야 하는데, 구조상 배터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폼팩터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제품이 2020년 테슬라가 최초로 공개한 '4680(지름 46mm·높이 80mm)' 원통형 배터리다. 기존 제품보다 사이즈를

키워 에너지 밀도를 5배가량 높이면서도 낮은 가격과 양산성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폼팩터는 각형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형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55%다. 국내에서는 삼성SDI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 비야디(BYD) 등이 각형 배터리에 주력한다.

각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알루미늄 캔을 외장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외부 충격에 강하다. 완성차 업체 중에선 BMW, 폭스바겐, 볼보 등이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각형은 파우치형보다 무거워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니켈 함량을 끌어올린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소재를 적용한 음극재, 모듈 단계를 제거한 셀투팩(CTP·Cell To Pack) 기술 등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얇은 재질의 필름 포장재가 층층이 쌓인 배터리 소재를 감싼 형태다. 무게가 가볍고 공간 활용도가 우수해 에너지 밀도가 다른 폼팩터 대비 가장 높지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 파우치형 배터리 채택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유럽 내 파우치형 사용 비중은 2019년 46%에서 지난해 35%로 하락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기후소송’ 12세 소녀 “기후재난은 현실... 당장 행동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한제아(12)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양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운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2031년이면 저는 성인이 된다.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이 소송이 2030년,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한다

작년까지 제기된 4건 병합돼 심리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한제아양 현재서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같아” 현재, 변론 마무리한 뒤 결론 도출 이르면 올 9월 이전 결과 나올 듯

고 생각한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2022년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렸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현재 6학년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이 쌓여 병합됐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어린이가 최후진술문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1차 변론이 법률적인 부분을 짚었다면, 2차 변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과 속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잔여탄소예산이 없어지는 미래 세대는 고통받게 된다”며 “목표를 높이면

당장 산업계의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술 혁신 등으로 연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는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 구조는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기술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 정책은 구성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근거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2030년 감축 목표는 합리적, 의욕적이라고 평가받는다. 2050년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5년마다 앞으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spes@

## ‘오염범벅’ 의정부 미군기지 토양 法 “정부, 현산에 93억 배상하라”

“제대로 정화않고 경쟁입찰 진행 계약상 채무 불완전이행 해당”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정부로부터 사들인 주한미군 기지의 토양 정화작업에 쓴 93억여 원에 대해 국가가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이후 정부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작업을 거쳐 이 땅을 경쟁입찰로 내놨다.

문제는 2016년 현산이 입찰에 참여해 446억 원에 해당 땅을 사들인 뒤 발생했다. 이 토지에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려

고 보니 여전히 우려 기준을 넘어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불소, 아연, 납 등이 검출된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 오염면적은 6753㎡, 심도는 지하 7m에 달했다. 결국 자비 93억여 원을 들여 정화작업에 나선 현산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된 토양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현산에 땅을 인도한 만큼 채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선행조사 결과에는 납, 불소가 포함돼있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정화작업이 토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염도 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인도한 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계약상 채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물질에 대해 우려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화를 마친 다음 현산에 이 토지를 인도했다면 정밀조사, 정화, 검증 등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꽃 기자 pgot@

## ‘백신 입찰 담합’ 6개 제약사에 2심서도 벌금형

검찰이 백신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한양행에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다른 제약사들에게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이 1조 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항소심에서도 반

성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유찰 방식을 중용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뜻에 따라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던 것일 뿐”이라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로 예정됐다.

전이현 기자 cahyun@



‘코리아 인바이트 유’ 참석한 초청객들 가수 아이유의 열렬 팬으로 유명해진 미국인 제브 라테트 씨가 21일 서울 성북구 삼정각에서 열린 코리아 인바이트 유(KOREA invites U) 환영행사서 사연 소개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인바이트 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K팝과 드라마, 스포츠, 한국어, 전통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거나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해외 거주 외국인들을 초청한 행사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한국을 사랑하는 사연을 응모해 선정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런 덕분에 공부 시작... 대학 합격의 꿈 이뤘죠”

우수학생 후기 간담회 개최 11명 학생 성공 경험담 풀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총력”

“‘서울런’을 통해 공부하다가 예일대 여름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서울런이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서울런’이 배출한 예일대 여름캠프 첫 합격자인 김민성 학생은 21일 열린 ‘서울런’ 우수학생 후기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철학이 배어 있는 대표 사업 중 하나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 학생들이 유명 사설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1대 1 멘토링도 제공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결과도 고무적이다. 올해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3%에 달한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 교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

해야 했던 김 모양은 올해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앞길이 막막해 낙담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알게 된 ‘서울런’ 덕분에라고 김 양은 강조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도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철학이 배어 있는 대표 사업 중 하나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 학생들이 유명 사설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1대 1 멘토링도 제공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결과도 고무적이다. 올해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이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3%에 달한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계열, 교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

도 122명으로, 지난해 78명보다 56.4% 가량 증가했다.

서울런 우수이용학생으로 뽑힌 윤 모양은 “서울런을 잘만 사용하면 학원 몇 군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서울런을 이용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여모 군은 “서울런을 오래 이용하면서 서울런이 발전을 멈추지 않는구나 느꼈다”며 “지금도 정말 벅찰 정도인데 발전 방안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사다리를 통해 여러분이 열정만 있다면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다른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관찰시켜주고 감고 감사하다”며 “지금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이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용기를 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홀몸 어르신 식사부터 건강관리까지...尹대통령도 '솔깃'

## 區석區석

### 마포구 '효도밥상'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모두의 부모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효도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1일 마포구 망원동 찜질경로당에서 '효도밥상·반찬공장 기자설명회'를 통해 "효도밥상을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구청장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회에서 (경로당 무료식사의 전국 확대를 언급하며) 마포구의 효도밥상 모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효도밥상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 '효도밥상'이 1주년을 맞이해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반찬공장'을 준공했다. 효도밥상은 관내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월·토요일) 균형 잡

주 6일 어르신 1000명 점심 제공 사업 1주년 맞아 '반찬공장' 준공 신선한 반찬 등 급식기관에 운송

### 박강수 구청장 "경로당까지 확대"

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상담까지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관내 16개 동 전체에서 33개의 급식기관을 통해 총 1000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제공받고 있다. 구는 조리시설이 없는 효도밥상 급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15일 반찬공장을 건립해 각 급식기관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송하고 있다.

반찬공장은 연면적 246.1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조리, 포장, 세척, 식자재 보관실과 취사실 등 조리공간이, 2층은 근무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한 어르신이 마포구의 효도밥상을 제공받고 있다.

사진제공 마포구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이날 방문한 반찬공장은 오전에 진행된 반찬 조리를 마친 뒤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였다. 냉장고, 냉동실부터 시작해 오븐, 감자 분쇄기 등 반찬 조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졌다. 반찬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조리가 끝난 뒤에도 각종 소독을 거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반찬공장 준공으로 조리시설 구축 시설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라며 "당일 조리한 신선한 국과 찌는 효도밥상 급식기관으로 오전 중 냉장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찜질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든 어르신들은 반찬공장에서 조리된 효도밥상을 받고 있었다. 이날 메

뉴는 제육볶음, 숙주나물, 감자볶음, 고추장아찌, 김치, 깻잎무침과 미역국이 준비됐다. 35명의 어르신은 각자 식판을 받아 자유롭게 음식을 덜어 익숙하다는 듯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어르신은 "오늘 제육볶음이 참 맛있"다"며 "효도밥상 먹으려고 일부러 씻고 예쁘게 꽃단장하고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효도밥상을 통해 식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친구를 만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 구청장은 "효도밥상에 나오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이 집에 찾아가 안부를 묻는 구조"라며 "현재는 자기의 전 재산을 효도밥상에 기부하겠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일반 경로당 시설로까지 효도밥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올 하반기 내에는 관내 경로당으로 효도밥상 사업을 확대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빈 기자 chaebi@



서울 광진구 독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5일 만에 방문객 100만명 돌파

독섬한강공원 1만460㎡ 규모 조성 시민 등 참여 76개 정원 콘텐츠 선보여 본행사 후 10월 8일까지 상설전시

서울 독섬한강공원에 조성된 다채로운 정원이 시민들을 즐기고 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이 단세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시민 수가 전날까지 102만 명에 달했다. 16일 개막 후 단세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2015년 서

울정원박람회가 처음 열린 이래 최단기간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특히 첫 주말(18~19일)엔 50만 명이 정원박람회를 찾았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 부지(1만460㎡)에 마련됐다. 그만큼 정원의 모습도 다양하다. 국내·외 정원작가는 물론 학생, 시민, 외국인,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해 76개의 정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방문객들은 호평을 쏟아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제 다녀왔는데 또 가려고 한다", "부스와 볼거리가 많

다", "참여 기관이 많아 다양한 가든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 "가을에 가면 어떤 풍경일지 벌써 궁금하다" 등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는 22일까지 본 행사를 운영하고 26일까지 사흘간 '상설 전시 특별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본행사 이후에도 운영한다.

정원상설전시는 10월 8일까지 이어진다. 다른 행사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행사장 입구의 '해치웰컴가든'과 '서울 굿즈샵'도

10월까지 문을 연다.

시는 정원박람회 다음 개최지로 서울 서남권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라매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권역에 수준 높은 '시민 대정원(Grand garden)'을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상설 전시 기간 동안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해 보고, 정원이 주는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jung2@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명확한 목표 갖고 변화 속도 대응해 질적 성장하자”

##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작년말 취임, 사업장 점검 이어 임원·팀장들과 첫 타운홀 미팅 위기극복 위한 ‘성장 DNA’ 강조 직원 애로 청취 오픈톡 간담회도



이훈기(맨 오른쪽) 롯데케미칼 대표가 2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변화의 속도에 적극 대응해 질적 성장을 실행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21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임원 및 팀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석유화학 자급을 제고,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규제 강화 등 현재의 시장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실시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 대표는 국내외 해외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격려해왔다. 이번에 처음 열린 타

운홀 미팅에서는 약 160여 명의 임원과 팀장들을 만나 석유화학 산업의 변화와 회사의 현실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DNA’를 강조하면서 전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사업단위(Strategic Business Unit·SBU)별 과제와 성과 목표 등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공유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기초화학·첨단소재·정밀화학·전지소재·수소에너지 등 5개 사업 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화학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로 사업 비중을 유지하고, 첨단소재사업과 정밀화학 부문은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육성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지소재는 양극박과 음극박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지위를 구축하고, 수소에너지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사업 기반 구축과 해외 청정 암모니아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영 실적과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대표는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롯데그룹 화학군의 회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강한 실행력과 정신력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한다면 현재의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임직원들과의 오픈톡(Open Talk) 형태의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본인의 회사생활 경험과 경영 철학 등을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케미칼은 분기별, 사업장별 맞춤 행사 진행을 통해 오픈톡 간담회를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장에 최규동 前 한화케미칼 본부장



(사)재난안전위기 관리협회(DSCMA)가 3대 신임 회장에 최규동(사진)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을 추대했다. 또 협회 명칭도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로 변경했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최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재난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다.

송석주 기자 ssp@

## 게시판

### 롯데장학재단, 우즈벡 세종학당에 장학금



롯데장학재단은 장혜선(사진 앞줄 왼쪽) 이사장 등이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세종학당을 방문해 장학금 1억 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타슈켄트1 세종학당의 학생은 600명이며 이 가운데 고려인 동포는 250명이다. 17일 타슈켄트 롯데호텔에서는 롯데복지재단과 통일문화연구원, 타슈켄트 기묘국제대학교(KIUT)의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박정용 상임위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박정용(사진) 소비자원 경기인천 지원장이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

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모두 4명으로 소비자원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상임위원은 1992년 소비자원에 임용된 뒤 피해구제국장 안전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 당시 ‘소비자불만 해결 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해 소비자 불만 신속 해결과 기업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 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재단법인 세종연구소는 김현욱(사진)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교수)을 신임 소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3년이다.

## 인사

◆한양증권 <신임> ◇본부장 △IB전략금융본부장 박종덕(상무) ◇부서장 △IB투자부장 남궁주(상무)

## 대한적십자사, 우크라이에 구급차 40대



대한적십자사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보건부 청사에서 긴급후송용 구급차 40대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부산항에서 선적된 구급차 40대는 4월 말 루마니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으며, 폴타바, 도네츠크, 자포리자,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체르니히우 등의 의료시설에 배치돼 구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구급차가 배치될 폴타바 지역의 부지사 와 구급차 운전기사, 빅토르 라쉬코 우크라이나 보건부장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노상우 기자 nswreal@·사진제공 대한적십자사

# 12개국 재보험 전문가 한국에 총출동

## 코리아리, 40번째 세미나 개최 24일까지 서울·당진·수원 등서

12개국 재보험 전문가들이 한국에 총출동했다. 코리아리재보험은 ‘제40차 코리아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리 세미나는 보험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언더라이팅 기술 공유를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9년 처음 시행됐다. 그 동안 60여 개 국가 보험사에서 매년 수십 명의 보험 전문가들이 참여, 전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코리아리 세미나는 전일 서울 수송동



‘제40차 코리아리 세미나’가 12개국 17개사 재보험 전문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코리아리재보험

본사에서 개최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서울, 당진, 수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17개사에서 온 재보험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보험시장 및 세계 재보험시장 소개 △주요 보험이슈

관련 강연 △국내 산업 현장 시찰 △한국 문화 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종규 코리아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리아리 세미나가 앞으로도 각국의 재보험 전문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코리아리재보험

## 신세계프라퍼티, 경기도와 ‘ESG정책’ 맞손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ESG정책’ 협력에 나선다.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는 21일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 도서관에서 ‘기회로 빛나는 미래를 위한 ESG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연(사진 왼쪽)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4개 스타필드(하남·고양·안성·수원)와 2개 스타필드 시티(부천·위례)를 거점으로 다양한 ESG 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스타필드 고객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측은 향후 △기후 환경 문제해결을 위



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가치소비 확대와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디어 콘텐츠 확산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예술인 지원 등 문화예술 기회 확

배민기 기자 athena3507@ 사진제공 신세계프라퍼티

## 부음

### 1980년대 월가 스캔들, 아이번 보스키

1980년대 미 월가를 뒤흔들었던 내부자 거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아이번 보스키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자택에서 향년 87세로 숨을 거뒀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월가의 위선과 탐욕을 그린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1987)에서 마이클 더글러스가 연기한 기업사냥꾼 고든 게코의 모델이 된 인물



로도 유명하다. 월가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딩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그는 1986년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돼 당시로서는 최대 액수였던 벌금 1억 달러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으며 한순간에 무너졌다. 검찰과 감형 협상(플리바게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거래했던 드렉셀 버넌, 마이클 밀켄 등 다른 월가의 거물들의 비위를 제보해 월가를 뒤흔들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뉴욕 남부지검의 검사장은 뉴욕시장이 된 루돌프 줄리아니였다.

보스키는 사법당국 수사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기 직전인 1986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경영대학원 졸업식 연설자로 참석해 “탐욕(greed)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 당시에는 청중의 박수를 받았던 이 발언은 이후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인용돼 두고두고 회자됐다.

▲송한영 씨 별세, 송인정(더피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씨 부친상=21일, 충남 대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낮 12시, 042-280-8181

▲곽영필(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씨 별세, 김희선 씨 남편상, 곽성은·성희·준상(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재희 씨 부친상, 이신영 씨 시부상, 이영민·오세창 씨 장인상 =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1호실, 발인 23일, 02-2072-2091

▲조옥연 씨 별세, 이석범(쓰리에치시스템 대표이사)·정범(제이엔비 대표이사)·상현(제이엔비 상무이사) 씨 모친상, 진병헌(의를 돕는 교회 목사)·한수균 씨 장모상 = 21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후 1시, 031-8003-4361

▲이인창 씨 별세, 조길순 씨 배우자상, 이상현·성훈·혜경·주영 씨 부친상, 임병하·김정미 씨 시부상, 신호정(고려대 대외협력처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김유택 씨 장인상 = 21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3일 오전 9시, 02-923-4442

마감 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10번째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가득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과 소통의 물꼬를 텃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섰다. 만 정국은 곧 다시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동효 정치경제부 차장

모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의 나열이 과연 민심에 닿을지는 미지수다. 어느 조직과 사회든 원칙이 존재한다.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대단히 나쁜 정치다.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주체 없이 여론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것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헌법 질서를 따르겠다고 운운하거나 민주당을 향해 나쁜 정치라고 일갈할 때일까. 두 달 뒤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벌써 1년이다. 그사이 아무런 진실도 규명되지 않았고, 채상병 사건은 여전히 미로 안에 갇혀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에 고개를 숙이는 답답한 상황마저 벌어졌다. 정부가 작구 금지령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들끓자 사흘만에 철회한 것을 두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

고 여당은 저격했고, 대통령실은 사과했다. 설익은 정책을 던진, 졸속행정이라는 여론이 거세진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한 것을 두고 R&D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는 해명도 나왔다. 사과와 해명의 연속이다.

대통령실은 총선에 패한 뒤 민심을 챙기겠다고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하지만 조직개편보다 민심을 등에 지지 않겠다는 진정성과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총선 전 보인 공감의 결여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은 아쉽다. 정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애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당심도, 이해관계도 민심 위로 올라 설 순 없다.

soarahosi@

‘민심 잡기’ 진정성이 관건

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혹은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내용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논현로

김영규 고려대 교수·경영학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보안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만 137개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에서 57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으며,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맬웨어를 통한 정보유출을 이례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부과였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이런 반시장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분명 명백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데이터이다.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 사용 언어, 사용자들 간의 관계와 같은 방대한 양의 정보가 메신저를 통해 쌓이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와 결합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동일 사용자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용도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와 이용자의 다양한 거래 패턴을 통해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AI가 직접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거래 및 생활패턴과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기업은 지금보다 더 막대한 규모의 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신저 플랫폼은 같은 나라의 사용자끼리 연결될 확률이 서로 다른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 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 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나라의 사용자끼리 연결될 확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지배적 사업자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로 연락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단순히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 왓츠앱도, 라인도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철수가 동남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메신저를 분리할 수 있는지, 상표권을 누가 갖게 될지 변수가 되겠지만, 동남아 시

장에서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통째로 넘겨주는 일은 네이버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프트뱅크 역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욕심이 크며, 최근 라인플러스 고용안정을 약속한 것은 대만이나 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라인은 대만과 태국에서 점유율 1위의 메신저로 알려져 있지만, 통계를 보면 대만에서의 압도적 지위와 달리 태국에서는 2위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격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라인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던 그대로 새로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올해 4월 기사다 총리는 미국 방문 길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마이크로, 보잉, 화이자 등 기업 CEO들과 오찬을 했는데 이 오찬 직전 마이크로소프트는 29억 달러를 일본 내 AI 인프라용 클라우드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BM은 일본정부가 39억 달러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본 반도체기업 래피더스와 AI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미일 협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서 네이버를 퇴출시키려는 시도는 네이버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AI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로보틱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AI 시대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도 못 피하는 공사비 갈등

노트북 너머

한진리 부동산부 기자



“이 정도면 뽀뽀(손익분기점)이예요.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벌 겁니다.”

최근 수년간 조합과 힘겨루기 하던 공사비 문제를 일단락지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계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지난하다. 건설사는 공사해도 남는 게 없으니 증액은 불가피하던 입장이지만, 조합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본전치기’ 이상을 하기 위한 이해 주체 간의 수싸움이 팽팽하다.

복수의 조합에선 건설사들의 태세 전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건설사들이 입찰 당시 제안한 공사비와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요구하는 공사비가 다르다”며 “수주 당시 추가 부담금은 없을 것이라 공언하던 모습은 온데

쌍용건설과 롯데건설은 각자 사업의 발주처인 KT에스테이트와 공사비 인상을 두고 날선 대치를 계속 중이다. 현대건설은 롯데쇼핑과, DL건설은 LF와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다. 2월 기준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4.11(2015년=10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무섭게 오르는 공사비를 따라잡기 버거운 것은 업계도,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증액을 둘러싼 실랑이가 길어질수록 ‘악수(惡手)’를 두게 될 수도 있다. 뒷맛이 개운치 않은 씹쓸한 결말을 맺지 않도록, 이해 주체 간의 합리적 의견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truth@

이투데이, 말투데이

☆ 모건 스톡 펍 명언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작가에서 사상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강연가, 영적 안내자로 진화한 그는 일생 ‘자기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때문에 진정한 자기계발서 장르를 구축한 저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마흔둘에 쓴 첫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뉴욕 타임스의 최장기 베스트셀러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936~2005.

☆ 고사성어 / 국사우지국사보지(國土遇之國士報之)

국사로 대우하면 국사로 갚는다는 뜻.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오는 예양(豫讓)의 말이다. 그는 자신을 알아준 지백(智伯)을 섬겼으나 지백은 조양자(趙襄子)와 싸우다 죽었다.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뼈에 옷칠해 술 따르는 그릇으로 썼다고 하며, 흑자는 요강으로 썼다고도 하자 산중에 숨어 살던 예양이 분개해 원수를 갚

기로 했다.

첫 복수계획에 실패해 조양자에게 용서받은 그가 다시 두 번째 계획이 탄로되자 조양자가 그를 꾸짖었다. 이때 그가 한 대답이다. “지백은 나를 국사로서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국사로서 갚으려 하였습니다 [國土遇我故國土報之]”라고 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시사상식 / 집단사고(Group Think)

팀 구성원들이 정보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잘못하게 되는 팀 의사결정 현상을 뜻한다. 즉 집단 구성원들 간의 잘못된 의견일치 추구성향을 의미하며 집단 의사결정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집단사고 현상이다.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팀 구성원들은 대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토론 없이 합의한 대안이 최선이라고 쉽게 믿으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일탈하면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1차대전 악령의 부활 막아야

제1차 세계대전의 악령이 부활하려 한다. 제국주의의 팽창 속에 열강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 민족주의는 거세지고 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서구권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나라가 복잡한 동맹 관계 속에 얽히고설켜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일을 연상케 한다.

슬로바키아 헨들로바에서 15일(현지시간) 5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당국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발한 아마추어 작가 경력의 71세 소포몰 경비원 출신 퇴직자가 로베르토 피초 총리를 공격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1914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민족주의였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혈연관계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역사와 문화, 종교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프랑스로 뉴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에서 최근 벌어지는 유희 쇼 사태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가 뉴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려 하자 친독립 성향의 원주민 카나크족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이다. 세계 3위 니켈 산지인 이 나라를 프랑스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식민지 시대의 논리다.

지난해 뉴벨칼레도니를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립을 추구하면 중국 군사 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독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세계 곳곳을 이미 식민지로 확보했던 영국과 프랑스 등이 떠오르는 강국이었던 독일을 견제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경제 방면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의 불안한 상황과 비슷하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 데스크 서각

배준호  
국제경제부장



한층 강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증기선과 전선, 전화,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 등의 발전으로 급속한 세계화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나 이런 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확산과 그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결국 전쟁이 터져 첫 번째 세계화의 물결이 무너졌으며 지금 상황은 당시와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도 인류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비슷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분열과 대립의 풍선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을 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1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나라로 꼽힐 수 있다. 일제 식민지였던 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우뚝 솟으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우리나라가 1차 세계대전의 악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우리나라가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여는 것도 한국이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는 세계인의 염원에 부응하는 행보로 볼 수 있겠다. baejh94@

### 세계 곳곳 지정학적 분쟁 격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100년전과 비슷해 한국, 세계평화 기여 '버팀목' 되길

## 진료실 풍경

##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생님, 제병은 도대체 언제쯤 낫는 겁니까?" 화난 목소리였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벌써 2년이 넘도록 병의 차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애써 남자의 눈빛은 외면했지만, 내 속은 가뭄 때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타들어만 갔다.

오랜 소화불량으로 그가 나를 찾은 건 어느 늦 가을이었다. 검사란 검사는 다 해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병을 찾아내지 못한 나는, 결국 상세 불명이란 마뜩잖은 단어를 병명에 붙여가며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처음엔 병세가 좋아지는 듯도 보였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도 잠시뿐, 며칠 안 되어 재발한 증상으로 환자의 찡그린 표정을 마주하는 건 그 후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무렵, 일주일일이 멀다 하고 진료실을 찾던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남자의 얼굴이 가물거물해져 가던 어느 날, 대기자 명단을 훑어보던 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그 환자였다. "전엔 제가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죠?" 미안한 듯 머리를 긁적이던 그의 등 뒤엔

천진난만한 아이 둘이 서 있었다. 이번엔 여행차 왔다가 감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했다.

"실은 제가 갑자기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 그간 병원을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론 몇 년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학교를 전학시킬 수 없었던 아이들을 대신해 3년을 매일 구불거리는 시골길을 1시간이 넘도록 운전해야 했던 아빠, 때론 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른 때도 부지수였던 그, 낯지 않던 남자의 병은 아마 아버지로서 짊어줘야 했던 가장의 무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세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병원의 긴 복도를 가득 채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론 아파하고, 때론 눈물짓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벌써 시들어버린 5월의 카네이션꽃들 속에서 그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과 행복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본다.

박관석 보령신제일병원 원장

## 사설

#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재민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다. '윈윈 게임'을 일구려면 다른 길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국내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1.33%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49.6%)은 3위다. 2016~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치의 4배인 44.6%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주휴수당'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어서 '법 따로, 현실 따로' 난맥상이 펼쳐진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 미·EU 통화정책에 '새우등' 조심해야

## 시론

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한 상황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다소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6~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점쳤던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1~2차례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바꾸어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성장부진' 유럽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는 매우 분주하다. 지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고, ECB의 주요 위원들 역시 언론에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인플레이션 지표는 2%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성장' 측면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성장은 매우 강한 반면, 유로존의 성장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다소 덜 되었더라도 성장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미국과는 달리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스웨덴과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선진국 중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유로존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분기(Divergence)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차가 확대되는데, 이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달러 강세와 그 반대편의 유로화 약세를 의미하게 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 속도를 시장의 예상보다 천천히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예상외의 느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며 엔화 약세를

자극하게 된다. 결국 선진국 통화정책의 '분기'는 달러 강세와 엔, 유로 등의 선진국 통화 약세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흥국은 대부분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선진국 통화로 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흥국에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편인데, 달러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표시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결국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부채 부담 가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美 인플레이션... 신흥국 경제회복 더디

반면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수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미국과 유럽의 분기로 인한 유로화를 비롯한 선진국 통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수출 개선이라는 장점을 희석시켜 버린다. 부채 부담의 확대와 함께 수출 실적 역시 치열한 환율 전쟁으로 인한 경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 신흥국 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탄탄한 미국의 성장과 여전히 끈적끈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있다. 단순히 미국의 고금리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통화정책 '분기'가 만들어 낼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이투데이</b>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SAMSUNG



천만대의 무풍이 만들어 온 건

직바람에 찌푸릴 일 없는 여름 [무풍 모드]

SI로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SI 절약 모드]

방방곡곡 빠르게 시원해지는 여름 [하이패스 서큐 냉방]

## 천만의 선택 BESPOKE AI 무풍에어컨



### 무풍에어컨 천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뉴질랜드 투어, 신라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1,000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24년 4월1일~6월30일 24년 무풍에어컨 갤러리 신규 구매 고객 대상,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S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S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스마트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 \*SI 절약 모드 사용 시 설정 온도가 최대 2도 상승할 수 있음 \*무풍에어컨 천만대 판매 관련, 2016년 1월~2024년 3월 일체의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풍에어컨(가정용, 상업용)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시스템 에어컨 누적판매량 기준

세상에 없던  
SI 라이프.